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80 1982년3월2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March 25, 1982

토론토발행인：김 명 규
편 집 인：이 석 현
인 쇄 인：박 정 서
광 고 부 장：송 광 호

연방정부, 건설경기부양책 마련

가옥수리비등 보조

인슐레이션 보조대상 범위도 확대

◇폴·크스그로브 주택장관

연방정부는 건설업계 경기 부양책으로 가옥 절연제(인슐레이션) 설치비 무상지급 계획을 확대하고 가옥수리비를 저이자로 융자한다.

23일 폴·코스그로브 주택상과 막·라롱 에너지상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위해 새예산에 2억달러를 책정,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새예산은 오는 1일부터 집행된다. 경기부양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옥 소유자에게 가옥수리비의 30%, 최고 3천달러까지 지원한다. 이 가옥에서 5년 이상 살았거나 연수입이 3만달러 이하자는 수리비 상환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61년~71년1월1일 사이에 건축된 가옥 160만채 (이중 토론토는 15만채)의 인슐레이션 (열손실을 막기 위해 천정이나 벽에 절연재를 집어 넣는것)비용을 최고 5백달러까지 부상지급한다. 이 혜택은 가옥에 한하며 상업용 건물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61년 이전에 지은 집에 한해서 이를 지급했으나 해당가옥의 30%만 혜택을 요청, 이번에 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아파트 1세대분(유닛)건설당 7,500달러씩 무이자로 융자 전국적으로 3만세대분, 토론토에서는 1만7천4백세대분이 건설되도록 유도한다.

이번 건설경기 부양책은 건설업계의 실업율이 높고 아파트의 임대가능율이 낮은 토론토등 지역에서만 실시된다. 아직 세부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야당으로부터 악화되는 실업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압력을 받아온 자유당.정부는 최근 수주간 정기적으로 고용창출계획을 발표해왔다.

현재 캐나다 전국의 공식집계된 실업자수는 사상 최고로 1백만이 넘는다.

실업자많으나 기술자부족

국내기술자 직장 못구해

110만명이넘는 실업자가운데 현재7,000개의 일자리가 고용자를 기다리고있다고 연방정부 이민고용성 부속기관 전국직업은행 이 발표했다.

이 채워지지않은 일자리는 화공기술자 45명, 간호원 314명, 교수 107명, 정비공 47명, 설계공 106명, 컴퓨터프로그래머 150명, 공장장급 34명, 지질학자 8명 신문기자 6명등이 포함돼있다. 이민성에 의하면 110만명의 실업자 가운데 이런종류의 직업에맞는 자격을 갖춘사람은 거의없어금년에만 2만~2만5천명이외국이민자로 충당돼야한다.

그러나「토론토스타지」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기술자로 이민왔으나 캐나다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

"예를들어 말톤에 사는 한스·글리엠씨는 7년전 서독에서 기계설계공으로 이민 계속일해왔으나 다니던 직장이 망한후 아직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직장에서 그가 들은답변은왜 너희나라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고 스타지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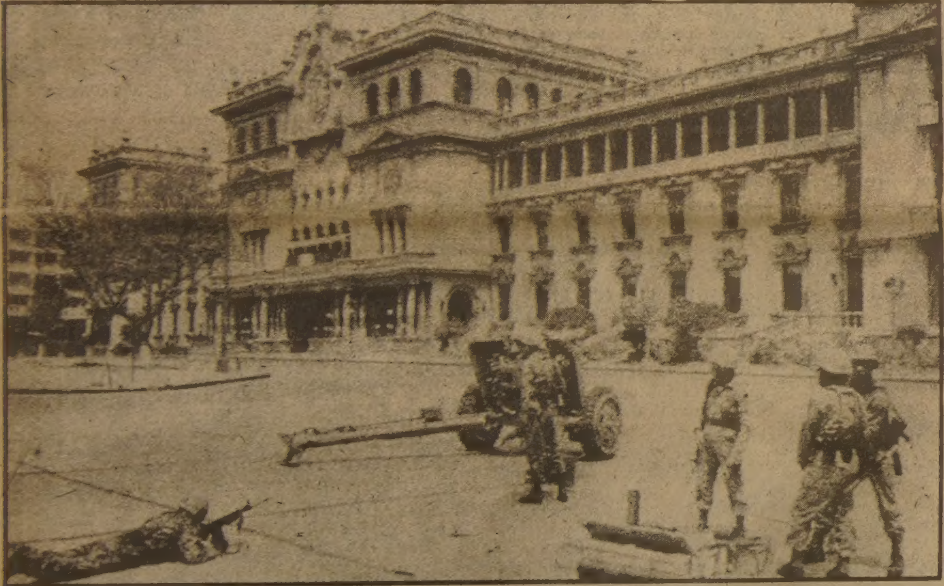
과테말라 군부쿠데타

가시아 대통령추방, 질서안정

(과테말라시티)에프레아·리오스·몬트장군이 이끄는 무혈군부 쿠데타로 78년이래 집권해온 로메오·루카스·가시아 대통령의군정이 23일 무너졌다.

쿠데타에 성공한 그룹은 지난7일선거로 재집권이확실시된 가시아 대통령이국외로 추방됐다고 발표했으나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쿠데타가 단순한군부권력다툼인지 혹은 지금까지 과테말라가 지켜온우익정치노선이 바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데타 성공직후 새군부는 "표면의 자유등 인간근본자유는 계속 허용된다"고 말했다.



◇23일 과테말라 시티의 내셔널·팰리스앞에 대포로 진을 친 쿠데타군. 가시아 정권을 무너뜨린 5인 군부는 최근 있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세계 석유값하락 불구

캐나다는 계속인상

◇쿠데타에 성공한 몬트장군

(오타와)세계의 석유시장 ..세가 떨어지고 캐나다국내 에너지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캐나다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캐나다 국내 기름값이 세계시세보다 훨씬 낮은 때문으로 떨어지는 세계시세와 국내시세가 엇비슷해져 작년 가을 연방·앨버타주간의 에너지 협정이 실시되려면 1년이상이 걸릴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회, 유대강화위해

사회당 인사 초청

(서울24일=연합)한국국회는 서유럽의 사회주의의원들과 유대를 갖기위해마리오·소아레즈 포르투칼사회당 당수를 한국에 초청키로 했다고 국회소식통들이 24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6월경 이태리의 사회당의원 5명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됐다고 말했다.

한국국회는 프랑스와 서독을 비롯한 모든 서유럽국 사회주의 지도자들에초청장을 보냈었다.

通貨量억제가 急先務

노벨賞수상자 프리드만敎授 촉구

〈워싱턴-AP〉 노벨상수상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교수(시카고대학)는 19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통화량조절이라고 말하고 통화량을 억제하고 정부지출을 감소하면 물가상승률을 3년내에 3%로 끌어내릴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애틀란타에서 열린 경제학자 회의에서 통화량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은 25%로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의회가 재정적자에 대해 지나치게 떠들어 대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때문에 의회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재정지출의 증대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 당혹시켜

쌀도입 둘러싼 뇌물

(뉴욕22일=연합)미국곡물회사와 한국정부의 쌀구매자간의 뇌물수수설은 미국이 세계4대 농산물 수출국이며, 긴밀한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를 곤경에 빠뜨렸다고 월·스트릿 저널지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쌀구입을 둘러싼 뇌물수수설은 전대통령 집권이후 최대의 정치스켄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저널지는 또 이번사건이 쌀수출업자간의 지나친 경쟁이라고보는 옴저버들 의 말도 인용했다.

英·佛·日은 회복조짐

칸퍼런스·보드發表, 西獨 伊는 變動없어

美·캐나다는 아직 침체局面 못벗어나

〈뉴욕〉 영국, 프랑스, 일본등 3개국은 경기후퇴가 끝나가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는 반면 서독과 이탈리아는 아무런 변동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도 약한 경기후퇴속에 빠져 있다고 한 경제연구기관이 22일 밝혔다.

비영리 비즈니스연구기관인 칸퍼런스·보드의 발표에 따르면 1980년 약간 하락했던 프랑스의 주요경제지표는 작년 12월 5%의 연간성장률을 보였다.

1979년이래 사실상 경기를 회복한 영국의 주요경제지표는 작년 11월6%의 성장률을 보였다.

작년 11월 8%가 상승했던 일본의 주요경제 지표는 1980년도의 최고기록에 다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과 이탈리아는 최근 수개월동안 아직도 경기침체속에 빠져 주춤거리고 있다.

미국의 주요경제지표는 작년 12월 아무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직도 연율로 환산하여 8%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는 작년 11월 경기침체로 부터 약간 회복했으나 주요경제지표는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다.

샤론·로이스·브램

3일(토) 매씨·홀공연

어린이 교육용 음악레코드로 북미전역에서 큰인기를 누리고있는 샤론·로이스·앤드·브램(Sharon, Lois and Bram)악단이 오는 4월3일(토)매씨·홀에서1시 3시반 두차례에 걸쳐 토론토·심포니와 공연한다.

〈Peanut Butter〉〈Five Little Monkeys〉, 〈She'll be Coming Round the Mountain〉등 어린이들이 즐겨 따라부를수있는 재미있는 노래들을 직접작곡, 연주, 레코드에 수록, 각 학교에 참고재료로 쓰이며 많은 상도받은 이 악단 연주회 티켓은 $6, $12, $9 이며 어린이는 반액이다.

티켓판매및 예약문의는 전화 598－3375이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1시부터 오후5시까지, 토요일11시부터 4시까지이다. 매씨·홀은 178 Victoria St. ×Yonge에 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 은, 증권, Bonds, 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강 상 욱
증권투자의 핵심은 시기의 선택으로 싸이클의 Bottom(최저수준)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요사이처럼 증권값이 하락할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값이 연일 폭등하여 일반대중이 서로 사겠다고 모여 들때는 결코 잡을수 없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강 찬 영
변 호 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봄철 유화특별 세일〉
단 한번의 절호의 찬스!
up to 75% off
기간：3월26(금), 27일(토) (2일간)

◎대형SIZE 유화 $29(living room 해당,
◎많은 동양화도 준비(약 200점)
◎각종액자 구비
Kim's Art Gallery
1286 Weston Rd. (웨스톤×에그린톤)
(B) 243－0233 (R) 651－2261 김석환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위조비자 입국자3백명 수배

미국무성 확인, 대상자들 이민국에 이첩

【본보 워싱턴지사】 미국무성 영사국은 6개월전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위조 서류를 근거로 상당수의 이민 비자를 발급했다는 3월22일자 「뉴스 윅」지의 보도내용을 시인했다. 또한 불법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 수가 2백~3백명에 달하며 그들의 명단 및 자료를 이미 이민국에 넘겼다고 밝혔다.

18일 국무성 극동담당 대변인 제임스 매너드씨는 "국무성은 이번 주한 미 대사관의 가짜 비자발급 사건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고 세부적인 비자 발급 절차에 관한 지침을 세계 각처의 미국 공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매너드 대변인은 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부정을 발견한 시기가 6개월 전이었다는 뉴스윅지와는 달리 교묘한 방법으로 비자 발급 사기조직을 금년초에 발견했으며 이 사건에 관련된 수명의 현지 채용 한국인 직원이 파면됐다고 말했다. 국무성은 또 주한 미 대사관에 대해 한국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비자 부정사건을 계속 수사중이므로 앞으로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조사결과로는 비자 발급을 위한 허위서류의 댓가로 1인당 5천5백달러까지 지불했으며 내통되어 있는 영사관의 한인 직원이 미국 직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비자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국무성 영사국의 공보관 램씨는 이번 사건에 미국인 직원이 관련된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서울에서 허위서류로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들의 비자발급은 이미 모두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국무성은 부정 발급된 비자를 모두 취소했으며 이를 통고받은 이민국은 가짜 비자로 입국한 한국인들의 소재를 조사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이 발견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이민법에 따르게 되므로 체포.강제추방이 가능하나 관련된자는 변호사를 선정, 공판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한국일보
533-2361

서울대교구 경주교 토론토서미사집전

천주교 서울대교구 부교구장 경갑룡 주교가 유럽 및 미주지역 한인교계 순방중 지난 20일 토론토에 들렀다.

경주교는 21일 한인천주교회의 주일미사를 집전,「현대에 처한 교회의 사명」에 관한 설교를 하고, 이어 동교회 연장급 신자클럽인 상록회 오찬회에 참석했다.

경주교는 22일 다음 행선지인 미국으로 떠났다.

美國人 신앙심은 利己的

프린스톤 宗敎연구센터發表 自身이 원하는것 구하기위해 기도

규칙적信仰생활하지만 十戒命아는 成人은 절반뿐

〈뉴욕-AP〉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있으며 50%이상이 매주 일요일 교회에 나가고 있고, 가정마다 적어도 한권의 성경책은 소유하고 있음이 프린스톤종교연구센터가 발행한 「미국의 종교」에서 밝혀졌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1973년 대법원이 승인한 임신중절수술안에 대해 46%가 반대하고 있는반면 45%는 이를 지지하고 있어 찬·반의견이 양분돼 있다.

인간의 생활은 수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견은 54%, 수태와 출생중간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이 22%, 출생부터 시작된다는것이 17%, 잘모르겠다는 의견이 7%로 나타났다.

TV나 라디오를 통한 「전파선교」가 종교의 중요요소인 예식참여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지만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조사결과 매우 부정적인면도 드러났다.

즉 십계명을 제대로 외우는 사람이 성인중 반도안되며, 10대 청소년중 25%는 전혀 성경을 들춰보지 않는등 성경에 대해 상당히 무지함이 판명됐다.

미국인들은 성경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매일 읽는 사람은 12%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이 매일 기도는 하지만 감사와 회개 또는 타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이 원하는것을 구하기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신성한 산타클로즈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의 종교심은 인구의 73%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영국인들 보다는 상당히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의 눈

아파트로 이사온 섬돌(?)

▲한교포 아파트입주자의 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네켤레의 신발이 흡씬 고국의 섬돌을 연상케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랫목이 따끈하고 매끈매끈한 장판방이 보일듯, 몸에 젖은 습관은 넌출처럼 질기지만 이역땅의 생활습관에 순응하는 것도 삶의 한 지혜가 아닐까. 요즘같은 불경기에 신발을 도둑맞지나 말아야 할텐데.

81년도 개인세 보고 요령

경제생활과 우리

세무상담편 ‖ 김명숙 회계사무소제공

◇김명숙씨

다.

실제의 불입금이 이상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잔여금을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 1981년11월12일(1982년예산안이 발표된날) 이전에 RRSP의 불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꾸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1982년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차용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된다.

다음은 RHOSP(Registered Home Ownership Savings Plan)로서 많은 교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

유아양육비는 엄마수입에서 공제

이사비용, 위자료등 비과세대상

다음으로는 총수입에서 여러가지 공제를 받아 순수입(Net income)을 계산 하는 단계다.

CPP,UIC, 직장단위 연금(Registered Pension Plan)과 노동조합비(Union dues)등은 T4슬립에 있는 금액 그대로 적으면 된다. 노동조합비는 별도의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RRSP는 20%의 "Earned income"(총수입에서 이자, 주식배당금, 베이비 보너스, 실업수당, capital gain, 기타수입(페이지1의 18번에 보고된 금액), UIC와 노동조합비를 공제한 금액 이나 $5,500(직장단위 연금제도가 있는 분은 $3,500)중 낮은 금액이 최고한계액 이이다. RHOSP는 일생에 단 한번만 들 수 있으며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이는 일년에 최고 $1,000씩 전생에 걸쳐 최고 $10,000까지 할 수 있다. 이에서 얻은 이자와 RHOSP의 원금은 해약한 해의 다음해 2월29일이나 3월1일내에 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대상에서 면제가 된다.

부부가 각자 RHOSP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00 최고 $20,000까지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장차 내집을 마련할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꼭 권장하고 싶은 좋은 제도이다.

수업료는 비록 학생이 수입이 없어서 부모가 내주었을 경우라도 반드시 학생의 수입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다. 학생이 장학금이나 grant를 받았을경우에는 이에서 수업료를 공제한 금액이 순수입으로서 이 순수입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전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이용이 안 된다. 영수증은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발행한것을 첨부하도록 한다.

Child Care Expense는 베이비씨터 비용이나 탁아소(Nursery School)혹은 캠프를 보낸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통은 엄마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엄마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엄마가 없는 경우(병, 이혼 등)아빠가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케쥴5를 완성해야 한다.

기타공제 (Other deduction)로는 스케쥴4에 적는 Carrying Charges, 이사비용 (T1-M을 완성할것), IAAC, 위자료 등으로서 Carrying Charge에 속하는 것은 RRSP, 주식, 혹은 사업에 쓰기 위하여 차용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 Safety deposit box rentals (은행의 개인금고)등이고, 이사비용은 새로운 거주지가 구 거주지보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40km 이상 더 가까운 경우에 한하며 이에 속하는 비용은 이사하는데 드는 비용 일체로서 새거주지에서 벌은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잔여금이 다음해로 넘어가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장학금이나 그외의 수입에서 이사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은 본인이나(537-3171)본사편집부로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제8회 피플즈·초이스賞

제인폰다·샐리필즈·브룩쉴즈

관객이뽑은 最高의 人氣 女俳優選定

바바라·맨드렐,「최우수」세部門 席卷

「매쉬」최우수 코미디賞 5連覇

◆가장인기있는 세여배우 제인폰다, 샐리필즈, 브룩쉴즈. (왼쪽으로부터).

18일밤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제8회 「피플즈 초이스 어워드」시상식에서 제인 폰다, 샐리 필즈, 브룩쉴즈등이 가장일반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인기있는 여배우로 뽑혔다.

한편 바바라 맨드렐은 최우수 여성연예인, 최우수 여성 TV배우, 최우수 여성 가수등 3개상을 한꺼번에 받았다.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TV코미디 「매쉬」는 다섯번째로 연달아 최우수 TV코미디상을 받았다.

한편 코미디안 밥 호프는 가장 인기있는 TV특집쇼의 진행자로 뽑혔다.

◆가장 인기있는 TV특별쇼 진행자로 뽑힌 밥 호프가 여배우 보데렉의 키스를 받고 있다.

◆다섯번때 연달아 최우수 TV코미디로 뽑힌 「매쉬」의 배역들.

◆상복이 터진 가수 바바라 맨드렐이 3개의 트로피를 안고있다.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㉒

보좌신부의 첫 시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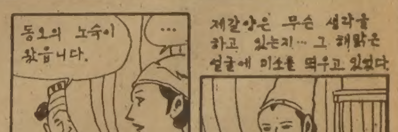
고마태오(흥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그때 나는 그의 동정을 살피며 그를 위로할겸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리노, 전쟁하며 고생깨나 했구먼. 나도 만 2년간을 전장에서, 그것도 최전방의 보병소대에서 보냈다네. 나도 자네처럼 부상도 두번 당했었고, 내 온 몸에는 상처가 무려 10군데가 넘는다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난 자네를 이해할 수 있어. 한편 감동적 이면서도 괴로움이많은 법이야. 고뇌가 서려있는 자네의 표정은 나에게 인간 부리노의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네그려." "지금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태오신부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닐거야. 역시 당신은 신부야. 내가 겪은 전투 이상의 전쟁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당신은 신부이기 때문에 전쟁이 가져온 '파괴와 인간사회의 도덕적 타락성같은 것만을 생각하고 있겠지.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 이 우주가 원자폭탄에 깨치고, 또 인류가 온통 타락 해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 해도 난 그런데 무관심 이야. 지금 내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고통은 우주나 인류를 위하는 그러한 거창한 고통이 아니야. 이러한 고통때문에 내가 설사 죽는다해도 이 세상 사람중 누구 하나 슬퍼해 주지 않는 나만의 문제야."

그는 여전히 시가 연기를 온 방안에 날리며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흥분되어 있지 않았다. 말도 조용히 했고, 태도도 정중해 보였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당신'이란 낱말을 사용했다. "부리노에게도 그정도의 심각한 인생문제가 있었군 그래. 사람은 다 제나름의 아픔을 안고 산다지만 자네가 겪은 고통은 좀 심했는가보군." 나는 다정한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해 우물우물 말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 아픈 일일세.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에 있던 카나다군 야전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을 때였네. 어느날 본국에서 많은 수녀들이 그 야전병원에 파견되어 왔었어. 그런데 그들 중에는 내 애인이었던 루씨가 있지 않았겠나. 예기치 못한 재회였지. 수녀복에 가려진 그녀의 모습은 정말이지 천사였었다네. 전상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던 당시의 내 심정에 루씨는 정말 거룩한 천사였어. 그녀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스러움 보다는 그때 나는 종교적인 그 어떤 거룩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루씨는 정말 수녀가 될 성소를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었으니까…. 물론 우리 둘이는 자주 만나게 되었지. 그러나 누구도 우리 둘의 옛사랑을 짐작하지는 못했다네. 아니, 우리 둘이는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날 루씨는 자기가 수녀된 동기를 말하며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네. 물론 내가 먼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녀가 14세되던 해 부활절 미사때 수녀가 되어 하느님의 사업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자기 혼자 맹세했다는 거야. 그후 나와의 사랑 때문에 혼자 무던히 고민하다가 자기 지도신부에게 고백을 했더니 글쎄 그 신부놈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하느님께 바친 맹세는 취소하지 못하며, 만일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느님의 벌을 받게 된다.」고 지껄였다는 거야. 자기의 자유의사로 아직도 자기의 운명을 결정질 수 없는 철없는 어린 나이에 일시적인 신심 안에 어쩌다 하게된 맹세를 어쩌란 말이야? 난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교회의 신부놈들이 하는 짓들이 역겨워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바 일세. 글쎄 생각해 봐, 태오신부. 그래 14세의 철부지 소녀가 어떻게 일생을 거는 맹세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야. 그리고 그 미친신부놈이 또 말하더래. 「인간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부리노에 대한 너의 인간적 애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것이나 일단 주님께 몸을 바치기로 맹세한 사람에게는 대죄가 된다. 더 이상의 죄를 짓기 전에, 또한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벌을 받기 전에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루씨는 나에게서 도망치듯 어느날 소식도 없이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야.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의식 보다는 하느님의 벌을 면하기 위해서 루씨는 수녀원에 입회한 셈이야. 하여튼 내 인생도상에서 만난 신부놈들은 다 이렇게 못 돼 먹었단 말아야.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자비로운 사랑을 설교하기보담 마치 하느님을 헌병대장처럼 내세우며 공포의식을 주는 놈들이 바로 신부들이란 말이야. 다른 신부놈들과는 달리 너 한테서만은 인간적인 정을 느낀다마는 너도 두고 봐야돼. 너도 별수 없는 신부놈이니까 말이야! 교회가 가르치는 테두리 안에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신부일 테니까…."

그는 여기서 말을 멈추자, 갑자기 격해진 흥분을 가라앉히려는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몇바퀴 돌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한편 왜 그가 교회에 등을 돌린지를 차츰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나 보고 다시 "너"라고 했으나 그것이 조금도 불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이고 뭔가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계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열가로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희소식♥
美의센타 탄생
*최신식 장비구입
*여드름 처료
*잔주름 제거
(AV) 화방지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매니큐-패티큐
*불란서 최고급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털이 많아 고민하시는분.
*바른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휜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 223-7884~5 Mrs. 리

점심 특별 스페샬 ***
한국관
기 간 : 1982년4월15일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5.00 : 유부덮밥, 생선초밥, 회덮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오전9시 OPEN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옥녀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BREAD-MAN
(Woodchester) Ltd.
2458 Dundas st. W. Miss. Ont.
◎년간매상 : $190,000
◎면 적 : 918 sq. ft.
◎렌 트 : 965불
◎리 스 : 83년 3월31일까지
◎옵 션 : 5년
◎아 스 킹 : $120,000
◎다운페이 : $50,000
※한 가족(4명경우)이 할 경우 년 수입 5만불 보장.
문의처☎ : 675-8930
Mr. 오

문어발式 企業확장 은행貸出 전면中斷

금융단 與信관리 4개항 議決시행

百億이상貸出 千3百業體대상 中小기업蠶食 사실상 봉쇄

재벌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앞으로는 어렵게됐다。금융단은 은행부채가 2백억원이 넘는 1백17개 계열기업群(통칭 그룹) 소속 1천1백50개기업과 단일기업으로서 은행부채가 1백억원이 넘는 거액차입업체 1백63개기업등 도합 1천3백13개(여신관리대상) 기업에 대해 적용할 4개항목의 투자금지요건을 새로마련, 이요건에 해당할때는 여하한 경우에도 기업의 신설, 매입 또는 출자를 할수없도록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대출 전면중단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했다。

거액貸出기업 거의 投資금지 要件걸려

신설된 투자금지요건은 ①기업정상화금융(세칭 구제금융)을 지원받고있거나 ②자기자본비율이 은행에서 정한 일정비율(指導比率)의 60%에 미달하는경우 ③출자금액이 자기자본의 50%를넘는 규모일경우 ④신설·매입 또는 출자하고자하는 대상이 중소기업일 경우등이다。

19일열린 금융기관대표자회의는 계열기업(거액차입업체포함)들의 투자금지요건 신설을 골자로 한는「주거래은행여신관리협정」개정안을 의결이날부터시행키로했다。이에따라 재벌들의 중소기업진출이 사실상 봉쇄됐다。

또 1천3백13개 여신관리 대상기업의 대부분이 4개항의 투자금지요건에 저촉되고있는 실정이므로 기업의 신설, 매입、출자활동한 재벌들의 문어발식기업확장이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한것이라고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은 말했다。

1천3백13개여신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은 엄격히 규제、앞으로는업무용이라하더라도 반드시 주거래 은행과 주거래은행운용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취득할수 있도록했다。

또 대상기업 모두가 배당등 결산내용을 사전에 주거래은행과 협의, 승인 을 얻도록했다。주거래제 적용대상기업에 대한 여신관리강화조치는 이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체질 강화를 더욱 촉진하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은행감독원은 주거래은행제운용을 점차 자율화시켜나간다는 방침아래 ▲여신거래 은행결정의 자율화(감독원의 조정변경승인권폐지) ▲업별 여신한도관리자율화(감독원의 한도설정 재검토지시권 폐지) ▲주거래은행의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강화등 일련의 조치도 아울러했다。

景氣회복展望흐려

內需·수출침체、通貨급증 강력還收

2월 經濟動向, 환율·公共요금 不安요인

全大統領에 報告

◇페루의 알바 上院의장에게 훈장을 걸어주고있는 全斗煥 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19일상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2월중의 경제동향을 보고받았다。

金부총리는 이자리에서 세금징수는 부진하고 반면에 1·14경기부양조치에 따른 주택·영농자금의 조기방출, 公共사업 조기집행등으로 돈은많이 풀려나가 지난월말현재 총통화증가율이 올연말억제선 20~22%보다 크게높은 26·9%에 이르고있다고 지적, 경제안정기반을 위해 오는3월말까지 이를 24·5%로 축소하는 강력한 통화안정대책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시중에 풀려나간 돈을 흡수하기위해 3월중1천억~1천5백억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매각하고 양곡기금, 비료계정 각1천억원과 5백억원의 韓銀차입한도 잔액을 양곡증권발행으로 代替, 일반소화하거나 차입자체를 연기, 돈이 더풀려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稅收확보를 위한 노력을 최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정부경비를 절감, 재정운용을 건실화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축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세계경기침체, 국제고금리와 달러貨 强勢등으로 수출은 작년11월이래、계속저조, 올연초 두달간의 상품수출은 작년같은 기간보다 불과 3·3%증가에 그쳤고 신용장來到는 8·6%가 오히려 감소, 수출에의해 先導되는 국내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한다고 보고했다。

內需침체와 이같은 수출저조에따라 연초의 산업생산、出荷활동이 부진해지고 在庫는 쌓여 돈이 많이 풀려나가도 돈이안돌아 기업자금사정은 크게 好轉되지않았으며 1월중 생산은 1·3%, 출하는 3%가 작년12월보다 각각준 반면 在庫는 3·9%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1월중 住宅用 건축허가면적이 재작년 6월이래의 마이너스추세에서 처음으로 전년같은달보다 16·7%의 증가로 나타나고 시설자금대출액도 52·2%가 늘어나는한편 선박을 제외한 기계受注도 계속 증가되고있어 금년들어 투자는 상당한 회복기미를 보이고있다고 만했다。

물가는 2월중 도·소매각 0·7%가올라 인율로 도매 9·2%, 소비자 8·8%로 지난5년간이래 가장낮은 안정세를 보이고있어 올한자리 숫자 물가안정이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작년말 떨어졌던 농산물가격의 反騰우려、연율 9~10%의 환율동향(3월17일현재 올들어 2·07% 상승)、방만한통화、공공料金상승요인등이 앞으로의 물가위협요인이라고 지적,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요금의 최대한 억제、환율의 안정적운용、통화안정대책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국제고금리와 국내금리인하에 따른 이자差때문에 잔·단기 資本도입이 부진、차관등 장기자본 收支는 올들어 지난 두달동안 지난해 같은때 도입규모의 3분의1정도인 1억1천9백만달러 증가에 그쳤고 유전스등 단기신용은 오히려상환액이 늘어 1억5천8백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제수지는 原油 석탄등 수입이 크게줄어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3억5천7백만달러에 그쳤다고 말했다。1、2월중의 일반예산적자는 2천7백16억원에 이른것으로 보고되었다。

金부총리는 당초 10~14%선으로된 올해 물가억제선과 낙관적인 油價전망에따라 7%로내외로된 금년도경제성장률을 비롯, 올해와내년도의 주요 경제지표를 재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財政긴축 物價안정을"

全대통령 指示

全斗煥 대통령은 19일『物價安定추세에따라 금년은 稅收결함이 예상되는만큼 不要不急한 경상비를 최대한절감하고 사업도 우선순위에따라 급하지않은것은 다음으로 넘겨 財政赤字가 생기지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기획원에서 월례 경제동향보고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경제기획원에서 국가예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위해서는 각부처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개별적인 품목관리에는 한계가있는만큼 通貨관리를 통해 總通貨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나가야한다』고 당부하고『앞으로도 物價안정을 경제시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평소에 국민들에대한 경제홍보교육을 강화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세계경제사정이 대단히좋지않아 수출이 다소 둔화되고있다』고 밝히고『우리의 경제여건에서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진이 필요하므로 이를위해서는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外米규명 9人小委

隨意계약 解明요구

국회經科委의「外米도입진상규명9人小委」는 19일하오 2차모임을 갖고 우선 조달청을 대상으로 조사를하고 관련부처에 대한 조사문제는 추후 검정키로했다。

이날 小委위원들은 다음회의를 23일하오2시에 갖기로 하는등 週3회이상 회의를갖되 단시일내에 활동을끝내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조달청이 공개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을한 이유서 ▲코넬·커미·애그로프롬등 각입찰회사의 자본금및 영업실적 ▲外米의 국별、회사별、계약당시의수출가격표 ▲코넬社가 커미社를 상대로제소한 訴狀 ▲81년 수요양곡 2백40만톤 긴급구매요청일체 ▲국제시장에서의 미곡시세표(80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별、품목별) 등 55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OPEC 石油減産量싸고 激論

石油相會議개막 사우디"6百萬배럴이하는 안돼"

이란·리비아등 사우디에 減産요구

【빈18日=聯合】원유의 공급과잉으로 빚어진 油價폭락 압력에 대처, 원유생산의 감축을 토의하게될 석유수출국기구(OPEC) 임시특별각료회의가 13개회원국의 石油相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빈의 OPEC본부에서 열렸다。

OPEC 石油相들은 현행유가 배럴당 34달러의 유지를위해서는 생산을 줄여서 원유공급을 축소하는길 뿐이라는 공통입장을 갖고 회의에 임하고있으나 減産量을회원국에 배정하는 문제에대해서는 격론을 벌였다。

이란과 리비아를 비롯, 원유판매부진과 유가인하로 재정적자를 내고있는 회원국대부분은 감산쿼터대부분을 하루 7백50만배럴을 생산하는 域內최대산유국 사우디가 떠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란은 사우디의 생산량을 하루 3백만배럴, 리비아는 4백만배럴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야마니사우디석유상은 이에 대해『사우디도 방대한 경제개발재원이필요하기 때문에 6백만배럴이하로 생산을 줄이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현재 세계원유시장에는 선진공업국의 유류소비가 줄고 멕시코 영국등 非OPEC국가의 원유생산증가로인해 하루 4백만 배럴정도의 원유가 남아돌고있으며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일부 OPEC회원국의 덤핑에 겹쳐 한때 45달러에 달했던 현물시장의 유가가 현재는 28달러(사우디 경질유)로 거래가 폭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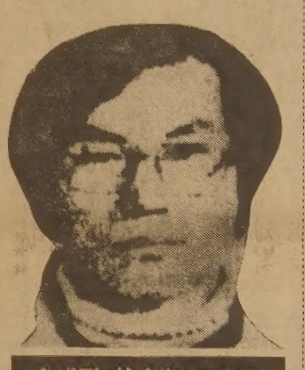
만약 OPEC 회원국들이 이번회의에서 減産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못한다면 덤핑에의한 가격경쟁이 불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사실상 OPEC의 존립을가늠하는 중대한 회의로 지적되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釜山美문화원放火 셋 수배

光州방화사건同一犯추정

☆기사9면



수배된 放火犯 몽타지

◇방화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를 받는 丁淳喆 (27·전남 光州市西區月山洞533의12) 의몽타지。

ADB·世銀과 日政府간의 混合융자 방식제의

日정부、對韓經協方式 전달

일본정부는 19일 韓日經協타결의 최대 난제인 經協총액에 관한 일본측 검토방안을 무라오까·구니오(村岡邦男)駐韓 일본공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무라오까 공사는 이날하오 외무부로 崔東鎭 歐洲국장을 방문、지난1·2차 양국고위실무자간의 예비접촉이후 日측 외무성 大藏省 通産省 經企廳등이 분석해온 프로젝트별 검토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시간10분간에 걸친 崔국장과 무라오까 공사간의 요담에서 日側은 한국정부가 요청한 60억달러에대한 全額 ODA(공공개발지원기금) 차관에의한 공여방식대신 ADB(아시아개발은행) IBRD(세계은행)와 日정부간의 혼합융자방식을 제의한것으로 알려졌다。

日側은 이같은 융자방안을 제시한 이유로『日側의 자금사정과 또한 자금의 성격상 60억달러 全額을 ODA만으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프로젝트내용에 따라서는 ODA가 아니고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體育部 오늘發足

體育部가 20일 상오10시30분 서울 中區 乙支路2街 외환은행본점(21층) 건물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발족된다。

地平線

4색당파싸움이나、사대주의를 들어 한민족의 전매특허처럼 내세운것은 日帝때 官學者들이었다。한민족은 당쟁때문에 망했고、내가 사대주의자였으니까 일본의 식민통치는 당연하다는 주 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군사평론가 岡崎久彦은 이러한 스테레오타이프를 벗어난 왜재미있는 글을 내놨다。월간지 文藝春秋에 실린 이글은「전략적 思考란 무엇인 가」하는 것이다 (한국일보 19일자5면보도)。

▼일본민족의 국제정치감각을 역사적인 안목에서 다루고있는 이글은 먼저 일본이 천박담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들고있다。이런「예외적인 특성」은 ①일본이 섬나라라는 지리적특성 ②隋唐때부터 주변민족의 군사적중압을 부도 면한 것으로 규정한 중국의 독특한 성격 ③바으로부터의 침략에 놀라운 방어능력을 발휘한 한민족의 특성때문이었다고 본다。

▼재미가 몽고의 침략은 막은 태풍이라는 우연때문에 일본민족은 중국이라는 압도적세력이 번창하는 경험、소위「파스·차이나」에 아무런 피해없이 안주해왔다는 분석이다。그래서 岡崎는 한민족에 특히 소위「전략」을 갖지못한 민족적전통이 생겼다는 얘기다。따지고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놓쳐버린 얘기를 솔직히 털어 놓은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수도 있다。

▼岡崎의 논문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李御寧의「縮小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이 7주동안 4만부가까이 팔리고 있다한다。한마디로말해서 모든것을 작게 만드는데 능한게 일본사람이라는 분석이다。한국의 온돌에대해 일본의 고다쓰、미국이 개발한 트랜지스터를 극도로 작게 만들어 세계시장을 휩쓴것들을 이해은들고 있다한다。

▼「오므리지향의 일본인」은 일단 자기 나라밖의 넓은공간으로나가면 예의바르고 섬세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왜구」가 된다고 李御寧은 말하고있다。岡崎의 논문이 역사적이고 정치사적인 안목에서 일본민족의 특성을 분석했다면、李御寧은 문화적인 감각으로 본 사실을 상징적인 어휘로 표현하고있다。그러나 두사람은 또 한가지 사실을 말하고있다。

▼岡崎는 일본민족이 국제정치에 대한 전략적개념을 갖지못했다고 비판하고 李御寧은 공간에서 제대로 행동하지못하는 일본인을 그리고있다。岡崎의 표현을 빌자면 지난날「팍스·차이나」에 안주했듯이 지금은「팍스·아메리카나」에 기생하고있는 것이다。그러면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려 덤비고있는「왜소한 일본」을 우리도 정확하게 평가해야할 것이다。

社会漫評

내려만 가려고 하니…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갈비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주 최 : 토론토 지구 한인회
후 원 : 한국일보사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가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

제6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왼쪽부터 안주영(매너)·김진명(미)·허윤정(진)·손주라(선)고보경(인기)양=

콜럼비아號 3번째 壯途 카운트다운

22일밤 12시發射 宇宙 百71시간飛行 地球 百15回 선회

루스머, 풀러튼大領등 둘탑승…太陽관측·宇宙환경조사

3번째의 여행길에오를 美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오는22일 밤12시(한국시간·이하같음)로 예정된 이륙을 앞두고 18일하오6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선장 잭·R·루스머(46·해병대령)와 조종사 찰즈·G·풀러튼(46·공군대령)등 2명을태운 콜럼비아호는 7백8일에걸친 총1백71시간24분동안 지구궤도를 1백15회 선회한뒤 오는30일 상오3시24분 1, 2차때와는 달리 美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미사일발사장에 착륙 귀환할 예정이다.

美항공우주국(NASA)은 18일 하오6시 콜럼비아호의 발사를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직후 『당초 귀환예정지인 에드워즈공군기지는 최근의 집중호우로인해 착륙이나 비상착륙에 부적당하다는 점이 분명해졌기때문에 어떠한 날씨에도 착륙이 가능한 화이트샌즈 육군기지로 귀환지점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콜럼비아호 3차비행은 주요임무에있어 1, 2차때와는 큰차이가 있다.

1차비행시 우주왕복선의 발사에서 지구귀환에 이르는 일련의 운행과정에, 2차비행이 우주왕복선의 배치및 회수를위한 로보트팔작동실험 및 지구자원과 해양탐사를위한 일련의 지구관측및 식물생장실험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던데비해 이번 3차비행은 ▲태양관측 ▲우주환경조사 ▲의약품정밀가공등 우주물질가공실험 ▲곤충실험 ▲식물 木質素(리그닌) 형성실험 ▲생체세포 분리실험등을 주요임무로 하고있다.

또한 적재화물도 이번 3차비행에서는 2차때보다 1천3백65kg이 늘어난 총9천6백58kg에 달한다.

이번 3차비행에는 NASA의 우주과학부(OSS)가 미국과 유럽의 대학및 연구소, 하청회사들에 의뢰하여 제작한 ▲플라스마조사측정기 ▲태양자외선복사관측기 ▲태양플래어(섬광) X레이편광계 ▲식물생장 실험장치 ▲우주오염측정장치 ▲운석가루채취장치 ▲궤도선분출가스측정장치등 9개장치의 집합체인 OSS-1(총무게 2천64kg)이 적재된다.

또한 이번 비밀실험에서는 로보트 팔의 물체취급실험을 비롯 2차때 연료전지고장으로 미진했던 난장이해바라기를 이용한 식물생장실험, 궤도선동체의 耐熱실험등도 다시 추진될계획이다.

특히 이번 비행에서는 콜럼비아號의 耐熱실험에 완벽을 기하기위해 운행중 10시간은 화물칸이 태양을 향하도록 30시간은 꼬리가, 80시간은 機首部가 각각 태양을향하도록 할계획이다. 【外信=綜合】

氣象변화따라 귀환지점변경
콜럼비아號

【에드워즈공군기지(美캘리포니아州) 18日UPI=聯合】제3차 비행을 떠나기 위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미 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귀환지점이 기상관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두차례의 착륙때와는 달리 일반관람객들의 착륙지점입장이 허용되지 않을것이라고 관리들이 밝혔다.

나사(美항공우주국)의 한 대변인은 화이트샌즈 기지의 시설이 미비하기때문에 이같은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는데 콜럼비아호의 지난1·2차 착륙시에는 30~60만명의 관람객들이 역사적인 귀환광경을 구경하기위해 에드워즈공군기지에 모였었다.

◇콜럼비아號 3차비행紀章 궤도선을 둘러싸고 있는 이글거리는 太陽의 불꽃중 3개의 기다란 광선은 3차비행자체를 뜻하며 선장 루스머(46)와 조종사 풀러튼(46)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聯合】

「紛爭의 늪」…오늘의 東南亞

베트남 共産黨 전당대회 계기로 본다

對蘇군협·캄보디아侵攻·中·越전쟁의 함수작용

外交고립-經濟難등 심각 親蘇路線 수정도 불가피

베트남은 오는27일 5년3개월만에 열리는 베트남공산당전당대회를 계기로 親蘇노선을 부분修正 캄보디아침공과 對中共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국타결의 길을 적극모색할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최근 절정에 오른 베트남軍의 乾期대공세와 소련의 캄보디아 레암港 해군기지 신규건설은 이런 관측을 간접으로뒷받침한다.

75년 越南전쟁종결후 크게 유동하기 시작한 東南亞는 蘇·베트남軍事협정체결, 美·中共국교정상화,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과 中·越전쟁으로이어지는 분쟁의 수렁속으로 빠져들었다.

ASEAN(東南亞國家聯合)과 인도차이나는 泰國·캄보디아국경선을 경계로 날카롭게 대립돼있는 『끊임없는 긴장』이 한계에 와있음을 서로 외식한 것 같다.

베트남은 越南전쟁후 남부에대한 급진사회주의화정책이 차질을빚은데다 77·78년 계속된 자연재해와 캄보디아침공, 中·越전쟁에 따른 막대한 戰費소모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82년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보고에 따르면 80년 어획고가 76년의 6할로 떨어졌고 주요수출품인 석탄생산량도 77년 6백20만톤에서 5백30만톤으로 격감된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메콩델타지역에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회복될경우 인구의 절반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예산의 4분의 1을 메콩강개발계획사업에 투자했으나 북부지도층에 대한 남부인의 극심한 반발로 미곡생산은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토·후副首相은 『식량, 소비물자, 연료, 에너지, 교통, 통신수단이 심각한 부족상태에 있다』고 실토한바 있다.

이런 난국을타개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外資유치가 간절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親蘇일변도의 노선에서 한걸음벗어나 西方에 접근하지 않을수 없다. 실제로 全黨대회를 한달앞둔 지난 2월프랑스의 드브레룩사, 아미티지美국방副차관보, 아메드유엔특사등 西方측 고위외교관들이 잇달아 하노이를 다녀갔다.

아세안의 기본입장은 아세안과 인도차이나(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의 共存에 있다. 미국이 물러간후 힘의 공백상태로남은 東南亞가 中·蘇의 새로운 覇權다툼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共存은 절실하다.

蘇·베트남군사조약체결에 따른 소련의 인도차이나 진출과 中共·베트남국경분쟁으로 캄보디아가 희생되고 아세안은 본의아니게 인도차이나와 대립하고 있으나, 아세안역시 싱가포르를 선두로 경제개발이 최우선 과제다.

아세안·인도차이나 共存의 열쇠인 캄보디아사태해결을 위해 아세안은 최근 캄보디아 3개저항세력의 연합과 중립화를 추진해왔고 이는 중공의 의도와도 합치한다. 中共과 아세안의 구상은 親蘇·親베트남의 現정권에 抗戰하고있는 ①키우·삼판의 크메르·루지②親西方·親아세안의 손·산前수상이 이끄는 크메르민족해방전선③노로돔·시아누크 前국가 원수의 물리나카 게릴라등 3派의 연합을 주선, 임시연합정부형태를 유엔에 議席을갖게 함으로써 베트남철수이후 현재의 헹·삼린정권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것은 베트남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국타결을 위해 과연 西方내지 아세안 또는 中共측과의 협상에 응해올 것이냐에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4천명의 병력을 투입한 이번 베트남의 乾期대공세는 크메르·루주의 군사기지를 두들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나, 全黨대회에서의 정책전환을 앞두고 군사적우위를 확보해놓기위한 사전작업으로 볼수도 있다.

베트남의 캄란灣, 다낭港과 캄보디아의 콤퐁솜港에 이미 해군기지를건설한 소련이 캄보디아의 레암港에 새로 또하나의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한것도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수 이후를 대비한 것일지도 모른다.

國際焦點

◇지뢰밭 4㎞ 중공軍포로들은 베트남의동·당으로부터 국경까지 4㎞의 산길을 걸어가야한다. 도로양쪽에 그어져 있는흰선밖에는 『지뢰매설 要注意』라는 표지가 놓여있다.

中·越국경에는 아직도 銃聲이

지친兩側, 묵묵히 포로교환

79년봄中·越전쟁으로부터 3년. 국경에서는 아직 소규모 전투가 끊이지않는다. 국경회담도 80년3월의 차관급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채이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쌍방을이어주고있는것은 포로교환뿐이다.

교환지점은 베트남의 동·당과 중공의 友誼關을연결하는 도로를 가로지른경계선상. 동·당으로부터 4㎞의 산길을 걸어가는데, 길을따라 약 1m의 폭으로 표시된 안전지역 양옆은지뢰밭이다.

베트남 장승엽군사위원회는 81년 한해동안 중공이 1천62건의침입과 포격을해와 민가1백12동이 파괴되고 13명의 사상자와21명의 부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중공측도 비슷한 규모의 베트남 군사행동이 있었던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포로교환은 이런 양쪽의 舌戰과는 달리 의외로 긴박감이 없다. 양쪽 군인들이 국경제로㎞지점을 사이에 두고 정렬하면 대표가 석방자명단을 교환한뒤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서를 서로 읽어 내린다.

中·越전쟁직후에는 석방과동시에 입고있는 옷을 벗어던지는등 극렬한 적대감정을 보였으나 지금은 이런 행위도 거의없고 선물로 안겨주는 사탕봉지나 담배같은것을 안은채로 각자국영토로 들어간다. 포로들은 거의 국경지역 출신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朴贊欽기자】

코끼리만한 韓牛

메아리

1톤짜리 젖소에서 50kg의 젖을 짰으면하는 농민들의 소박한꿈이 어느새 현실의 세계에 와있다. 2년남짓길러도 4백kg크기로 살찌우기가 어렵던 韓牛가 품종개량으로 1년반이면 4백80kg정도로 크는가하면, 1代교잡종은 6백50kg까지 자라게되었다한다. 그뿐아니다. 앞으론 8백50kg을 목표로 수정란이식, 호르몬처리를한다는 것이다.

이얘기는 엇그제 농촌진흥청이 연 품종개량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하나 韓牛를 수입해서 和牛로개량한 일본에선 벌써 1톤짜리肉牛를 농가마다 예사로 기르고있으니 놀라와할일은 못된다. 다만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품종개량에 뒤늦게나마 열을 올리게 되었으니 반가운 소식임엔 틀림없다.

게다가 유전자공학응용에도 일부 성공했다는 만큼 더욱 고무적이다. 우리나라 농촌서도 1톤짜리 고기소가 초지에서 풀을 한가로이 뜯어먹는 장관을 볼수있고 젖소 한마리에서 바께쓰로 3통정도, 우유를 짤날이 그리 멀지않은셈이다.

외국에서는 고기소를 코끼리만하게 만들고 암송아지만 낳는 젖소, 수송아지만 낳는 고기소 개발이 눈앞에 와있다고한다. 바야흐로 유전자공학을 이용한 품종개량은 숨가쁜 경쟁시대에 들어선 느낌이다.

농진청에 의하면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이 18%나 증수되는 새품종벼를 만드는데도 성공했다고 한다. 유전자공학기술을 도입, 벼수확량이 단보당 5백70kg에서 6백70kg으로 늘어났는데, 몇해안가 단보당 1천kg이되면 주곡자급의 꿈은 저절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油菜는 단보당 5백71kg으로 현재보다 두배나 수확되는 單交8호를 육성했으며 감자는 無病種 개발로75%, 밀은 65%증산에 성공했다 한다. 대단한 성과라고 할수있다.

품종개량의 촛점은 공기에서 질소를·흡수하는콩과 수확량이 많은 보리를 결합시켜 비료가 필요없는 새곡물을 만드는 일일것이다. 이젠 녹색혁명이 유전자공학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금속을 먹는 박테리아, 나무의 섬유질이나 쇠똥, 돼지똥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곰팡이, 사막에 자라는 사보텐과 보리의 交配연구등 차례를 기다리는 과제는 많다.

資源이 적은 우리나라는 머리로 농사를 지어야 주곡자급도 되고 농축산물수출로 돈을 벌수 있다. 그러기엔 유전자공학이 가장 유력한 자본이라 할수있다. 농진청의 이번 발표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책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韓半島戰재발경우 蘇사주可能性높아

홍콩極東誌보도

【홍콩18日=聯合】만일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발발위협이 있다면 이는 북괴의 직접도발보다는 소련의 사주에의한 전쟁이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極東誌(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가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니카라과 곧 民防衛令

企業엔 愛國稅부과도

지난15일 非常事態 선포

【마나과18日AP=聯合】지난15일 전국일원에 비상사태를선포한 니카라과정부는 18일美중앙정보국이 지원하는 반혁명집단의 침공위협에 대처키위해 19일 민방위령을 선포하고 이어 수일내로 각기업체에 『애국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움베르토·다니엘·오르테가국방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南美국가의 軍고위장교들이 北美제국주의의 니카라과 침공계획에 협력하기 위해 中美에 도착했다는 정보에 따라 민방위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약5만명으로 추산되는 니카라과민병대가 향토방위대및 공장방위대의 조직을 도울것이라고 밝혔다.

오르테가국방상은 이어 이웃나라 온두라스에 있는 니카라과 반혁명집단이 CIA의 지원을 받아 니카라과를 침공하려 하고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인군사위원회가 수일내로 각기업체에 『애국세』를 부과할것이라 말하고 만약 『애국세』를 부과하지 않을경우 6개월이내에 주택과학교통의 건설계획에도 커다란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니카라과 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쥐고있는 토머스·보르헤 내상은 니카라과가 CIA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중이라면서 니카라과는 太平洋연안이나 졸타야근처의 온두라스국경으로부터의 침공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나 코스타리카 국경지역에대한 보안조치를 강화중이라고 밝혔다.

◇合訓장병과 환담하는 波야루젤스키首相 폴란드수상 야루젤스키(가운데검은안경)를 비롯한 波, 소련, 東獨軍수뇌들이 현재 폴란드에서 실시중인 3國 합동기동훈련을 참관한후 장병들과 환담하고있다. 【東베를린 18日AP電=聯合】

아랍6國 협의회

바레인·오만등 防衛계획 마련

【쿠웨이트18日AP=聯合】아랍6개국 페르시아만협력협의회(GCC)는 외부침략으로부터 회원국인 바레인과 오만을 방위하기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쿠웨이트의 관영 알·안바지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페르시아만 소식통을 인용, 이번 회의를 가진 GCC회원국참모총장들이 對바레인 무기지원계획과 오만제군비·방위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蘇製 核미사일 쿠바배치 不容

와인버거警告

【워싱턴18日AP=聯合】미국은 쿠바에 대한 소련의 어떠한 핵미사일배치도 용인하지않을 것이며 소련의 이같은 위협이있을경우 지난60년대 쿠바위기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와인버거美국방장관이 18일 경고했다.

와인버거장관은 NBC-TV의 『투데이』 프로에 출연, 나토가 중거리미사일 5백72基의 유럽배치계획을 강행할경우 미국도 소련에의해 이와 『유사한』 입장에 놓이게될것이라고 위협한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이번주 연설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소련의 이같은 위협은 소련이 쿠바에 미국을 사정거리내에 두는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되고있다.

外信안테나

◆레이건美參謀總長새로임명=레이건美대통령은 18일 美合參의 인사개편 일환으로 공군과 해군 참모총장을 각각 새로 임명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존·베시 美합참의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現유럽주둔 미공군사령관인 찰즈·A·가브리엘대장을 공군참모총장에 그리고 현 미태평양함대사령관인 제임즈·D·왓킨즈 제독을 해군참모총장에 각각임명, 발표했다.

이들 新任참모총장들은 오는 6월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류·알렌 美공군참모총장과 토머스·B·헤이워드 美해군참모총장의 후임이된다.

◆波, 西方銀에 利子2억9천만弗변제 【워싱턴=UPI】폴란드계엄당국은 지난해 서방민간은행들에 지불해야하는 2억9천만달러의 이자를 『완전변제』했다고 폴란드국영언론기관들이 18일 보도했다. 【바르샤바=AP】

南北韓통일은 對話로推進을

페루上院議長

하비엘·알바·오를란디니 페루上院의장겸 제2부통령은 19일하오 『페루정부는 작년9월 南·北韓의 대화장소로 페루의 수도 리마를 이용할것을 제의한바 있다』고 밝히고 『單一민족인 한국의 分斷은 정치적·人爲的 작용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記者4명 銃擊으로 모두死亡

엘살바도르서

【산살바도르19日UPI=聯合】엘살바도르 정부군은 엘살바도르 북부지역에서 좌익게릴라들과 함께 여행중이던 4명의 네덜란드기자들에게 총격을가해 사망케했다고 엘살바도르 국방성 공보관이 19일 공식발표했다.

海外토픽

독신·純潔을 찬양

★로마敎皇 신학강론서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최근 신학강론에서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생활과 순결유지를 찬양했다.

교황은 바오로 6세강당에서 베푼 주간강론을 통해 그리스도도 초자연적 동기에의한 독신생활에관해 분명히언급했다고 지적하면서 독신생활과 순결은 자제와 영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특별한소명이며 하늘나라와 교회생활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 【바티칸 시티=AP】

印尼에 예수再臨

★十字架에 못박힌채로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지방에있는 마테나 마을의한 교회에서 최근 십자가에못박힌 예수의모습이 나타났다는 소문이퍼져 많은 사람들이이 마을에 몰려들고있다고 자카르타의 일간 메르데카지가보도했다.

예수의 모습을 처음본사람은 이마을주민인 구세군교사 H·룸바씨(40)로 그는 지난2월의 어느 토요일 『깃세마네』 교회의 마루에 붙어있는 나무판자를 뜯어냈을때 낭독대를 덮고있는 검은천위에서 움직이는 4개의십자가를 보았다는것.

이같은 현상은 그후 며칠동안 여러사람들도 목격됐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자카르타=안타라】

◇“쇠고기 먹고싶다” 황금빛털을 가진 리트리버 사냥개가 17일 터론토에서 정육점직원의 어깨에멘 쇠고기덩어리를 훔치려고 껑충뛰고있다. 【터론토18日AP電=聯合】

强姦보상 4천50弗

★너무적다 女性단체 大怒

英國의 범죄위원회가 강간피해자는 4천5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범죄피해 보상지침을 마련하자 여성단체들은 강간피해가 얼굴에 상처를 입는 정도의 피해밖에 안되느냐고 반발하면서 이는 강간사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항의했다.

英國의 범죄위원회는 또 남자가 얼굴에 상처를입는 피해를 당했을경우는 7천2백달러, 여성피해자는 1만1천7백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도록하면서 강간피해자는 4천50달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는데 여성단체들이 강간피해가 얼굴상처정도도 안되느냐면서 보상금을 올려야한다고 들고나섰다. 【런던=UPI】

中共에 포르노붐

★規制法내도 계속蔓延

중공은 자본주의및 제국주의문화의 퇴폐적 산물로 여기고있는 포르노서적과 음반들이 중공의 젊은이들및 심지어 고위관리들에게까지 파급되고 있음을 우려, 최근 이의 규제법을 발표했으나 북경의 일부상점에서는 여전히 포르노 음반이 밀매되고있다고 16일 북경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규제법발표이후 북경에서 계속 포르노음반을 연주 또는 판매했던 3개상점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중공관리들은 젊은이들사이에 서구및 홍콩팝뮤직이 널리 유행되고있는것에 대해 이는 혁명의 열기를 식히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北京=聯合】

쿠폰을 가져오면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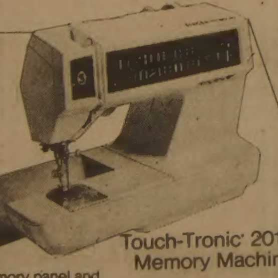
3월 수퍼 스페샬 싱거 재봉틀

★싱거 회사중 이곳에서만 교포특별 우대합니다. ★무료 강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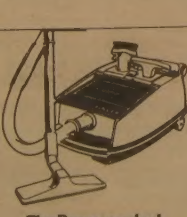
— 기간 : 3월12일~3월말까지 —

- FREE ARM
- BUILT IN BUTTONHOLER
- STRETCH STITCH
- SLANT OVEREDGE
- BLINDSTITCH

Reg. $299
Save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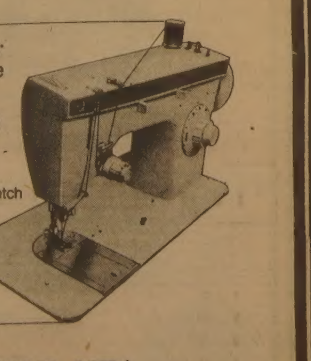


컴퓨터식 재봉틀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Reg. $1349
Save $300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REG. $169.95
SPEC. $111.9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ONLY $128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튠 업(TUNE-UP)
SINGER FAMOUS 4STEPS TUNE UP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APPROVED DEALER)

SINGER SQUARE—ONE 쇼핑센타내
MISSISSAUGA (416) 277-0341 MR. 오

10개邑面 通禁추가철폐
25個읍면 나머지地域도 부분해제
19일 밤12時기해 實施

내무부는 19일밤12시를 기해 야간통행금지 미해제지역 가운데 10개 邑·면의 통금을 추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또 설악산국립공원에 위치해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통금해제에서 제외됐던 江原道襄陽郡降峴面 上福里등을 비롯, 25개 읍·면 가운데 일부분과 27개 里洞에 대해서도 추가로 통금을 해제했다.

이에따라 江原道華川郡看東面과 忠南舒川郡韓山面, 扶餘郡良化面, 全北의 益山郡熊浦面, 沃溝郡開井面, 玉山面, 扶安郡舟山面, 扶安面, 全南靈光邑, 慶南蔚昌郡, 熊川面등 10개 邑·面의 통금이 전면 해제됐다.

내무부는 이밖에 전방 접적지역중 江原道麟蹄邑－東草市간 44번 46번 국도상의 차량통행과 임해읍·면단위행정구역내의 고속도로및 국도상의 차량통행도 각각 허용키로 했다.

추가해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江原道 ▲華川郡＝看東面 全體, 下南面 龍岩里 居札里 三和里 位雅里 ▲麟蹄郡＝南面 於論里 新豊里 新南里 李子里 富平里 金富里 甲屯里 藍田里 水山里 上水內里 ▲襄陽郡＝降峴面 上福里一部(上福2里) ◇京畿道 ▲始興郡＝蘇萊邑＝新川里 米山里 梅峴里 大也里 銀杏里 梅花里 道倉里 茂金里 錦李里 果林里 玉吉里 桂壽里 芳山里一部(芳山里＝상골·마주대·단이단골) 浦里一部(浦里3里＝걸숯) ▲平澤郡 玄德面＝德陽里一部(德陽5里) ◇忠淸南道 ▲舒川郡 韓山面全體 ▲扶餘郡 良化面全體 ◇全羅北道 ▲益山郡 熊浦面全體 ▲沃溝郡＝開井面·玉山面全體, 大野面 山月里 鍊山里 竹山里 寶德里 地境里一部(대덕·우덕·만자·백마) ▲扶安郡＝舟山面全體, 幸安面 鄭里 大草里 三千里 眞洞里 新基里, 白山面＝龍溪里 元川里 大水里 河淸里 德新里 巨麻里 平橋里 梧谷里 新平里 大竹里 竹林里 ▲高敞郡＝興德面 堤下里, 雅山面 鳳德里 中月里 禾洞里 上甲里 下甲里 大東里 舟津里 南山里 鶴田里 星山里 ◇全羅南道 ▲靈光郡＝靈光邑全體 ▲光陽郡 光陽邑 竹林里 紗谷里一部 龍江里一部 牛山里一部, 玉谷面 元月里 大竹里 ◇慶尙北道 ▲迎日郡 義昌邑＝德城洞 ▲盈德郡 丑山面＝釜谷洞 七星洞 烏項洞 大谷洞 華川洞 竹岩洞 寧海面＝元邱洞 大津洞 ◇慶尙南道 ▲河東郡 古田面＝城川里 大德里 銘橋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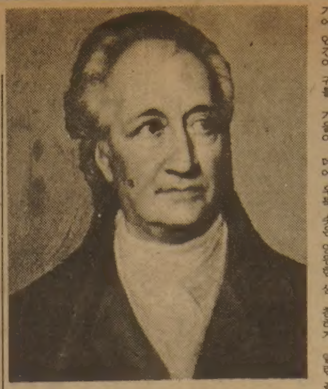
▲義昌郡 熊川面＝全體 ...

스포츠短信

李德姬、코데에敗北 오스틴 女子테니스

【오스틴18日(UPI)＝聯】한국의 李德姬는 17일 美텍사스州오스틴에서 개막된 총상금 5만달러의 오스틴여자프로테니스대회 단식1회전에서 2번시드의 클라우디아·코데(西獨)에 6－4, 6－3으로 패배했다.

한국서도「協會」창설·사진전 개최



◇요한·볼프강·폰·괴테。22일 1백50주기를 맞아 세계적으로 그를 기리는 행사가 벌어진다.

22일은 百50周忌… 各國서 기념行事

오는 22일은 괴테가 세상을 떠난지 1백50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독일어권은 물론 세계각국에서는 괴테 추모와 그의 문학을 재조명하는 강연회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독어독문학회가 이날 하오4시 독일문화원 강당에서「한국인장에서 본 괴테」「괴테의 파우스트 해석의문제」란 주제로 괴테문학 공개강연회를 열고 이어 한국괴테협회를 발족시킨다. 또한 독일문화원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괴테의 인생과 창작의 단계를 중심으로 사진전시회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호프스트라대학에서 4월1일부터 나흘간「20세기에 본 괴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며 필자도 참석해서 강연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괴테 탄생 2백년및 1백주기등을 맞아서 그때마다 기념행사를 가졌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크고 뜻깊었던 행사는 1949년에 괴테탄생 2백주년을 맞아 미국 시카고 대학 총장이던 허친스가 주관한 행사였다.

약관 30세로 시카고대학교 총장이되어 미국의 대학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중의 한사람인 그는 또한 괴테 흠모가였다. 그가 대학생의 몸으로 위생병을 지원하여 1917년에 이탈리아 전선으로나갔을때 그의 배낭에 항상 지니고 다녔던 책은 괴테의「파우스트」한권 뿐이었다고한다. 허친스는 말한다. 작품「파우스트」는 인간이고자 노력하는 한 방황을 면치 못했던 가장 순수한 인간의 이야기라는것이다. 괴테이후 시대가 변하고 생존하는 영토에 따라 국적은 다르지만 인간은 조금도 달라질 수 없고 달라지지 않았다.

괴테의 作品과 生涯는 人間 가능성에의 挑戰

日常을 긍정하며 超國家的 휴매니티 강조

郭福祿 〈西江大 獨文科교수〉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 도 시인일 뿐 아니라 한사람의 조화된 인간이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괴테임을 알고 있다. 괴테가 80여년이라는 짧지않은 생애를 통해서, 릴케의 표현을 빌자면 80년의「체험」을 통해서 이룩한 인간의 이야기에 인간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은 후 인간은 참으로 많은 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전체로 서는 결국 망의 홍수를 이루는 묶거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때「파우스트」는 그 수많은 말들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영원한 섬에 관용과 참하게 열린 끝에 관용과 거기에 인간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1949년 괴테탄생 2백주년기념제는 유럽의 지성인들이 2차대전의 상흔을 치유시키지못하고 구심점을 찾지못한채 우왕좌왕하고있을때, 유럽으로부터 비판적국이라고 멸시를 받고 있던 미국에서 거행되었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자기관찰이란철학적이며 모호한 상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특정한 국적과 환경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구체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그 관심이 지극한애정으로 달구어질때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괴테에게는「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것 보다는「인간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더 중시되었으며 이는 관점의 구현을 위해서 그 목표의 의 생애 역시 홍수 속에서 제방을 쌓는듯한 부단한 노력을했던 것이다。그러면서도 한편 괴테는 일상적인 세계를 우선 긍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했음에도 초국가적, 우주적인 휴매니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소국의 국정에 참여한 일상인이면서도 우주적인 철학세계를 우리에게 보여 줄수 있는것이다.

사랑, 세계문학을 부르짖던 괴테의 이름 아래 다시 유럽 화합의 길을 찾게 하고 단합의 길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그때 미국에서 연사로 초대된 사람들중에 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이미 1932년에 괴테상을 받았던 알베르트·슈바이처였다.

슈바이처는 현대에 있어서의 괴테의 정신은 군중의지에 마음이 팔려서 그 정과 행동을 함께 하는 기계인간이 되지 말며, 언제나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가지는 인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사실「파우스트」를 위시한 괴테의 문학이 우리에게 큰의미를갖는 것은 그의 작품이나 생애가 모두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도전을 하고 그것을 정신세계 속에서 성취시켰다는 점이다. 괴테는 말한다.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가? 아마 그것은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일것이다.

그대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라。그러면 당장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즉 괴테는 작가지만 행위를 제일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사진

千字春秋

花貞熙 〈作家〉

사진이 있다. 옥순이 경순이 종숙이 은희 순선이 안순이 길례 순전이 나, 이렇게 아홉명이 찍은 사진이다. 보통학교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과도가 굽이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방학동안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맘에서 찍었던것이리라. 어언 60년도 넘은 아득한 지난 날의 일이다.

나는 이 사진을 1·4후퇴 당시 피난지에까지 가지고 갔다. 접시 한개 안들고 오면서 사진을 가지고 왔다고 놀려주는 친구가 있었다.

순선이 집에 우리가 모이던 날 나는 이 사진을 들고 갔다。사진을 먼저 목격한 한 친구가 『이 사진 좀 봐』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제각기 안경을 찾았다。안경을 두고 온 친구는 빌어서 보았다。친구들은 38선을 넘느라고 사진보다 더 한것도 버리고 왔다면서 사진을 간직한 나를 부러워했다. 몸만이라도 넘어왔으니 장하다고 나는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넘어오지않은 친구는 종숙이 뿐이었다。종숙이는 6·25사변 때 서울에 들어오자 나를 찾았다。종숙이와는 보통학교적에도 그랬으려니와 숙명여학교적에도 같은 하숙에 줄곧 살았다. 내가 어느 야구선수에게 홈딱 반해 있으니까 종숙이는 그 자가 참빗 장수의 아들이라고 지독히 훼방을 놓았다.

6·25사변때 종숙이는 서울에 들어오자 나를 찾았다. 나는 종숙이를 옛날만큼 여기고 종숙에게 공산당을 왜 하느냐, 그게 무슨 재미있는 일이냐고 말했다。내말이 떨어지자 종숙이는 큰소리로 날이 실컷 고생해서 차려놓은상앞에서무슨 잔소리냐. 우리가 남반부를 해방시키기위해서이 태동안을 꼬박 앓아서 잠을 잤다고 약을 썼다. 종숙이는 숙명학교 교책을하는등 맹활약을 하다가 북으로 다시갔다. 옥순이는 넘어와서 미국으로 이민을가서 미국에서 죽었다. 경순이는 아들네집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죽었다. 그랬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남의나라 남의땅, 생판 모르는 사람들속에 혼자 외롭게 묻힐뻔했을 것이다。몇안남은중에 또 은희가 힘든병으로 누워앓고, 순선이는 양로원으로 간다고한다。근자에 이민을 간 길례가 안순에게 보내온 편지엔 고국이 그리워서 큰일났다고, 무수히 썼더라는 것이다。우리가 사진을 찍을 그땐 큰일이 날것 갑지 않았는데……

「아이러브 로큰롤」首位
美 캐시박스選定 텐틈팝

팝토픽

이번주 美國의 싱글팝레코드의 톱은 제트&블랙·하트의 「I love rock'n roll」이 지난주 처음으로 톱에 오른 저니의「Open arms」를 밀어내고 그자리를 차지했다.

「I love…」는 지난주 4위에 있던 곡이며 1주만에 톱의 자리를 빼긴「Open arms」는 4위에 머물러 있다.

2·3위는 지난주와 자리바꿈을 했을뿐이며 새로 랭크된 곡은 올리비어·뉴튼·존의「Make a move on me」한곡이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고·고즈의「We got the beat」로 1위에서 8위 5위까지 로 올랐다가 다시 부상했다. 【AP】

◇싱글팝 베스트 10
<캐시박스 선정·괄호안은 지난주 순위>

▲1 (4) 「I love rock'n roll」(존·제트&블랙·하트)
▲2 (3) 「That girl」(스티비·원더)
▲3 (2) 「Centerfold」 (J·게일즈밴드)
▲4 (1) 「Open arms」(저니)
▲5 (8) 「We got the beat」(고·고즈)
▲6 (5) 「Shake it up」(카즈)
▲7 (6) 「I can't go for that」(대릴·홀&존·오츠)
▲8 (9) 「Pac-man fever」 (버크너 & B·가르시아)
▲9 (11) 「Make a move on me」 (올리비어·뉴튼·존)
▲10 (7) 「Mirror, mirror」 (다이애너·로스)

오늘「82서울북·페어」개막
국내서 처음…책의 國際祭典

세계 2千여개 出版社서 12萬種 전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책의 제전「82서울북·페어」의 전시장에서 마지막 손질이 한창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볼수없었던 국제적인 대규모 책의 제전이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린다. 한국출판매주식회사가 창립 20주년기념으로 서울 종로구 서린동73 서울종합전시센터의 동사옥에서 마련한「82서울북·페어」(도서박람회)에는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등 국내외 2천개사가 최신간 서적들을 출품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출판사가 약1천개사, 日語圈의 출판사가 9백50여개사, 歐美의 출판사가 40여개사로 모두 12만종의 책들이 전시된다.

총3백평의 전시장은 한국예정이며 시판중인 국내도서 서적, 洋書, 日書, 카세트및 회화교재, 여성레저코너등으로 나뉘어 각 코너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도록 꾸며져있다.

특히 역점을 두고있는곳은 우먼 파워시대에 맞추어 여성 레저코너。음악, 요리, 꽃꽂이, 패션, 편물에서 바둑, 등산까지 다양한 국내외서적이 진열된다.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로 사은판매를할 방침을세우고 있다.

주최측은 또 朝鮮朝의 교과서전시회,「독서살롱」개설등을 뚜렷하게 ...

창립기념이라는 취지가 그렇듯 이번 전시회는 독자들에 대한 사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최측은 여러가지 사은방법을 마련하고있다.

그중 하나가 3층에 설치되는「특설코너」。이곳에는 일반서점에서 살수없는 古書와 절판된 稀貴本, 過月號잡지등이 염가판매된다。그리고 전집류, 사전, 카세트등값이 비싸 독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洋書등을 할인판매하게된다.

출판판매주식회사는 특설코너뿐 아니라 모든 외국도서를 10~50%씩 할인판매할

카세트·女性·레저코너도 마련
古書·희귀본·過月誌 염가판매

및 국제문화교류행사도 겸들여 가질 예정.

독서살롱은 독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신간서적을 들춰볼수있도록 1층전시장에 꾸민 8평정도의 방으로 북·페어가 끝난후에도 계속 개방하여 독자들의 미팅장소로만들겠다는것이 주최측의계획.

朝鮮朝교과서전시회는 바로 독서살롱에서.열리는 형사로 서지학자 安春根씨가 소장하고있는 50종의 희귀본교과서를 보여준다.

이중에는 1936년에 쓰여진한문교과서「千字草訣」, 茶山이 어린이들의 한문교육을 위해 펀찬한 것을 비롯하여「名物小學」「蒙字」「四字小學」등 한문교과서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이밖에 栗谷이 초학자를 위해 쓴 修身교과서「擊蒙要訣」, 여사교과서인「内則」, 「東史撮要」, 「青丘歷代」와 「唐律」등은 수리 書誌學界에서 극히 아끼는 자료들.

국제문화교류행사로는 日本出版販賣주식회사가 21일 光州無等도서관에 1천45권의 일본서적을 기증하게된다。이것은 1977년 韓國出版販賣가 日販과 맺은 日문화교류협정에 따른것으로 日販은 78년에도 高大에 1천5백권의 학술도서를 한국측은 1980년 日本유네스코의 아세아문화센터에 韓國學관계도서를 기증했었다.

韓國出版販賣의 呂丞九사장은『선진국에서는 도서박람회가 온 국민을 흥겹게하는 책의 잔치인데비해 한국에서는 용어마저 생소한 형편이다. 이번기회에 우리도 도서박람회를 가질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梁平기자】

流星의 賦
風前의 燈火 ⑫ 〈337〉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從)에 참가했다。입고 있던 우의(雨衣)를 입금께 진상했다.

벽제(碧蹄)에 이르렀을땐 우세(雨勢)가 심하여 모두들 흠씬 젖었다。일행은 잠깐 역사에 들러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다。관원들 가운데 이곳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혜음령(惠陰嶺)을 지날 무렵엔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궁인(宮人)들은 작은 말을 타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울면서 갔다。마산역을 지날때 논에서 일하던 사람이 통곡을 떠뜨리며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는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까』

하고 소리 쳤다.

임진강에 도착했을때도 비는 멎지않았다。배에 오른 임금이 영상과 나를 옆으로 오라고 했다。강을 마저 건너기전에 어두워졌다。임진강 남안에 옛날의 관청건물이 있었는데, 그 재목으로 적들이 뗏배를 만들어 건널 것을 염려하여 불태우도록 한것인데 북안까지 비친 그 불빛으로 길을 찾아 겨우 건너갈수가 있었다.

초경에 동파역에 도착했다。파주목사 허진(許晉)과 장단부사 구효연(具孝淵)이 약식(略式)으로 주방을 차려놓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굶주린 하인들이 뛰어들어 닥치는대로 집어 먹었다. 그 때문에 임금이 식사를 걸렀다。허와 진은 너무나 황송해서 어디론가 도망처 버렸다.

5월1일 임금은 동파관에 대신들을 인견하여 물었다.

『날씨 순할사 가운데 진집으로 근왕(勤王)할 만한 자가 있을까』

갈곳 하는 자가 있을까

실로 애통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수경은 울면서 물러났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만 청거들고 뒤쫓아 오너라』

유성룡이 말했다.

이 호경(李好慶)이 유성룡의 서원을 이수경(李守慶)이 유성룡을 앞에 앉아서 울었다.

『숭문원의 문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읍니까』

어둠 속에 임금의 차가(車駕)는 출발했다。3청의 금군을 가운데 도망치는자 숨는 자들이 있었다。일행이 경복궁 앞을 지날때 시가의 양편에서 민중들의 울음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승문원의 서원 우리의 운명을 대표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어른이기때문이다.

그 소식을 들고 홍계남도 떠났다.

임금은 한성을 떠났다.

그러나 우리는 홍계남의 감회를 살피기에 앞서 임금의 행차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뭐니 뭐니 해도 그때 우리의 운명을 대표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어른이기때문이다.

손을 맞잡고 말 없이 울기만 하던 숙람의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흠씬 얼굴로 가득한 비 속인데도 울음 섞인 목소리

었다.

사노비(公私奴婢)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민들이 장예원 형조를 불태운 것이다。이곳에 곱고 고운 궁녀가 ... 이어 궁성창고에도 방화했다。이때 경복, 창덕, 창경의 3궁이 한꺼번에 전소했다.

사현을 넘어 석교에 도착했을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경기감사 권징(京畿監司 權徵)이 달려와 호종(扈

돈의문을 나와 사현(沙峴)에 이르렀을 때 먼동이 텄다。성중을 뒤돌아 보니 남대문 안의 대창(大倉)에 불이 나서 연기와 불꽃이 충천하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숨바꼭질 ⑫ 〈65〉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썩 내키진않네。고아원 출신이란 곱지 아프거든. 언제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가 있어야지。혹시 좋지않은 짓을 저질러도책임은 자네가 져야되네』

『그럴리는 없어。참한 애라고 고아원에서 보증해서 뒀게 봐주기로 한거니까。그렇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돈 만지는 일일랑은 시키지말아주게』

『자넨 참 센티멘털리스트야』

『왜?』

『옥이오땐 잃어버린 누이동생 찾아보려고 백방으로애도 많이 쓰고다니더니만, 이제 와선 고아라도돌봐서 위안을 삼으려드니말일세』

『내 마음 달래려고 이러젔나, 속죄하는 뜻이지』

『그거나 그거나지 뭐。가륵하다. 해야겠지만 나보기엔 소녀취미가 지나친 것 같아。그일이 뭐 자네 잘못이냈나。다 전쟁 탓이지』

마간의 돈만으로 충분했다。수철의 자선하는 마음은 몇푼의 금전위에 잔해(殘骸)가 되어 남아있을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관계는 대여섯달씩이나 잘 나갔다。그러나 해가 바뀌어 언니 같은 일로 만난 자리에서 친구는 수철이 건네주는 돈을 받지않았다.

『그 계집애가 도망을 가 버렸다지 뭔가』

친구는 그일이 너무도 하찮은 일이라는듯이 같이 점심 먹고 차마시면서 자기 학원의 입학률이 얼마나 좋고 따라서 자기 사업의 전망이 얼마나 밝다는 자랑을 지리하도록 늘어놓고난 연후에야 성의없이 간단명료하게 말했다.

『뭐, 오목이가 도망을가』

수철이는 자기도 모르게 망스럽게 놀랐다.

『이름이 오목이던가? 자넨 바른 사람이 필그런 것까지 기억하고있어?』

친구는 본봉은 적어두고말 꼬리를 잡고 신기해했다.

미런 얘기를 할때는 수철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어디까지나 원순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은 태도를 잃지않았다。그의 위선은 자신도 감쪽같이 속아넘어 갈만큼 완벽했다.

이렇게해서 맺어진 수철와 재수하원 경영하는 친구 사이의 약속은 한동안 잘 지켜졌다.

두사람은 계군처럼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서로 번갈아 가며 점심을 사기도했다。친구들의 뒷소식을 전해듣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육지거리도 하고, 더러는 음담 패설을 즐기기도 했지만 목이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았다.

목이에 관한 건(件)은 그들이 잊지않고 주고받는 얼굴로 사람 부리게 된게 쉽지않은면서도 열떠름한 얼굴로 『그야 뭐, 자네 부탁이니 박절하게 마다할순 없지만 내키지않아 했다.

이 약속이라야 대단한 건 아니었다。다달이 경제적인 보조를 해줄테니 목이에게 후한 보수를 주고, 고되지않은 일을 시키고 깨끗한 잠자리를 주고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살펴주면 고맙겠다는 것이었다.

『이명이어야 하네。익명。나는 그 아가씨로 하여금 나에게 감사해야한다는 부담감같은거 느끼게하고 싶지 않단말야。난 어디까지나 순수하니까』

순수란 무엇인지, 수철은 열심히 순수를 강조했고 그런 부탁을 받은 친구는 그로 사람 부리게 된게 싫지않은면서도

東學革命日 天道教서 기념식

天道教는 21일 제88회 東學혁명기념일을 맞아 상오11시에 중앙대교당을비롯한 전국 2백여 教區에서 일제히 기념식을 거행한다.

중앙대교당에서는 기념식에 이어 국회李圭正의원이 동학혁명을 주제로한 강연회를 갖는다.

李議員은 東學은 개인의 영혼구원과 來世의 영생만을 기구하지않고 지상에 복지낙원을 건설하려한 救國安民의 사회혁 신앙이었다고 회고하고 東學교도들 순교선열들의 큰뜻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의 기념

에큐메니컬 운동 實務者 교육개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70년대 에큐메니컬운동의 반성과 80년대의 방향」을 주제로한 실무자교육을 오는 26, 27일 이틀간 YMCA 다락원에서 개최한다.

朴庚緖박사 世界教會協근무차 출국

재단법인 크리스찬 아카데미부원장 朴庚緖박사가 세계교회협의회(WCC) 사무국 및 아시아교회협의회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 교회 간의 문제를 다루게 될 ...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교회의 ... 사를 발표했다.

... 교회원조 피난민정책 세계봉사기구의 아시아책임자로 부임하기위해 오는25일께 출국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교회협의회는 아시아교회협의회 (CC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와 상호협력하는 세계적인 에큐메니컬 본부이다.

基督메시지研究 가톨릭女學生館

가톨릭 여학생관은 그리스도 메시지연구를 오는 25일 하오 7시 鄭良模神父(西江大)지도로 실시한다。이 강연에는 기초신학을 비롯, 신앙의 본질과 크리스천실존문제들이 다루어진다.

* 한국일보
TEL : (416)533 · 2361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 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 P $120 000 아스킹 $120 000
②주매상 $10 000이상 아스킹 $130 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 000 아스킹 $109 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 500 아스킹 $65 000 렌트 $500(Mon) 리스 : 11½년

*도나스 샾
①주매상 $9 200 렌트 $3 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샾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샾등 여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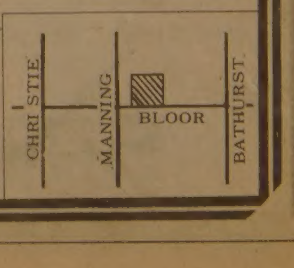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 밥	$2.95	곰 탕	$3.50
생선초밥	$4.50	설 렁 탕	$3.95
오 뎅	$3.00	빈 대 떡	3개 $1.50
오뎅백반	$3.75	만 두	4개 $1.00
가끼우동	$3.00	에 그 롤	4개 $1.50

658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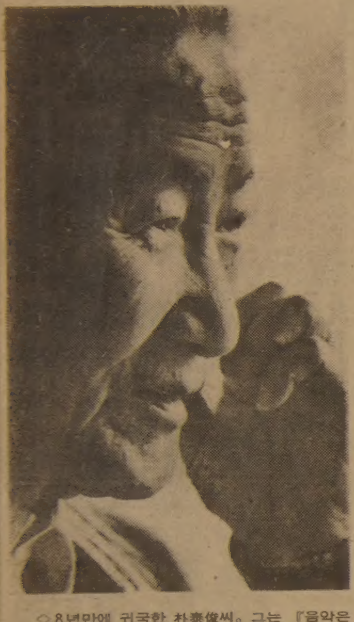


여든 세살의 음악가 朴泰俊씨가 8년간 살았던 美國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朴泰俊씨는 미국에서 지냈던 마지막 날까지 교회성가대지휘를 맡아 老音樂家로서 건전한 음악생활을 지켜왔다. 『미국에선 큰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번에 아주 귀국한 셈이지요. 이젠 다시 미국으로 가지않고 여기서 지낼 생각이에요. 이나이인데도 미국에서 사는동안 지휘를 많이했어요. 지난 해에는 재미교포들이 만든 羅城교향악단과 함께 오라토리오 「天地創造」를 지휘했고 그전해에는 「메시아」를 지휘했지요. 지휘때 6개월동안 연습을 했는데 별로 피곤한줄 몰랐지요』

83세의 老益壯 朴泰俊씨 귀국

美서 8년간 살다… 지금까지 樂團지휘

「오빠생각」·「思友」등 百50曲작곡



◇8년만에 귀국한 朴泰俊씨。그는 『음악은 精神福祉에 크게기여하는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作曲家」라고 생각하기보다 「음악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작곡한 가곡들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오빠생각」「思友」「오뚝이」등은 음악학을 거의 알지못했던 20代 초반에 지은 작품들이다. 이 노래들은 평양 崇實전문 文科를 졸업, 馬山 창신중학에서 文藝를 가르치고 있던 무렵에 작곡했다. 당시 그는 작곡에서 對位法이나 화성학이 있는지조차 알지못했다고 한다. 「비단구두를 사가지고 온다고 서울로떠난채 오지않는 오빠」를 기다리는 쓸쓸한 가사에 구슬픈 가락을 붙인 「오빠생각」, 「봄의 교향악이 울려퍼지는 청라언덕위에…」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詩에 붙인 「思友」, 「책상위에 오뚝이 우습구나야」의 재미있는 동요에 곡을붙인 「오뚝이」등은 그자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인기를얻어 하나의 國民歌謠가 됐다.

『본래 음악에 대한 素質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中學1년때 삼촌댁이 풍금을 치는 것을 들으며 아주 신기한 생각이 들었고 나도 한번 치고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학교가 파한 후 혼자 남아 교실풍금을 보며 매일 풍금을 익혔었지요. 그 때는 악보가 없어서 악보가 들어있는 찬송가책을 교재로 풍금을 탔는데, 2년만에 4백곡이 들어 있는 찬송가책 1권을 다 칠수 있게 됐어요. 비록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노래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악보를 읽는법을 약간 배우고 풍금을 칠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는 「오빠생각」등의 노래를 작곡한 후 음악을 정식으로 공부하기위해 33년에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민스터 합창지휘대학으로 유학, 4년간 합창지휘를 전공했다.

귀국후 延大에서 봉직하며 55년에 종교음악과를 창설해서 작곡과 종교음악을 가르쳤다. 음악에 본격적으로 投身한 후 가곡과 동요등 1백50곡을 작곡, 「노래가 부르고싶어 대중사회에 누구나 부를수있는 쉽고 재미있는 음악」을 많이 선사했다. 그는 「思友」의 가사를 맡은 鷺山李殷相씨의 중매로 노산의 외사촌 누이동생인 金鳳烈여사(78)와 결혼, 2남3녀를 두고있다. 자녀들중 음악을 하는 자녀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아무도 음악에 뜻을 보이지 않은것을 항상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는 음악은 「人間精神의 福祉的기능을 가진예술」이라고 설명한다. 음악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美的세계를 끝없이 동경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격려하게하는 정신적인 福祉기능을가진예술이라고생각하고 있다. 그의 건강은 좋은편이어서음악회에도자주가볼생각이라고 한다. 현재 거처하고 있는 집은 江西구禾谷동山1백24의9에있는 막내아들(朴文權)집. 【高桂淑기자】

"餘生을 故國에서 보내겠다
5子女 모두 음악안해 서운"

中·高교복 자율화…첫 의상전시회

◇중고교생의 자율화된 의상은 어떤 모습이 어울릴까. 내년부터실시될중고교생교복자율화를 앞두고 이를위한 첫의상전시회가 18일부터 3일간 삼성빌딩 3층에서 열리고있다. 출품의상의 소재는 자연소재가중심이고 색상은 엷은 노랑 하늘색 분홍색등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日本안정의 열쇠를 쥔 韓半島"

"韓民族은 外征한번 안했지만 侵略받으면 놀라운 防禦能力"

日本 前駐美公使·防衛廳참사관 역임한 軍事평론가 岡崎久彦씨 「文藝春秋」 기고

韓民族은 역사상 단한번도 다른 민족을 정복한 일이 없다. 그러나 他민족의 침략에는 용감하게 저항, 나라를 굳게 지켜왔다. 부끄러운 일이든, 자랑스러운일이든 그 도덕적 가치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객관적 史實로 자주 이야기되고있다. 日本의 대표적 종합월간誌「文藝春秋」는 4월호에서 이런 韓半島의 지리적환경과韓民族의 평화적 저항능력이 중국대륙과 北方민족의 南下를 저지, 중국역대왕조를 非침략적 강대국으로 대륙안에 남아있게 함으로써 極東지역을 안정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戰略的 思考란 무엇인가」—「일본안정의열쇠를쥔韓半島」란 제목으로 駐美公使, 防衛廳參事官을 역임한 일본군사전문가 오까자끼·히사히꼬(岡崎久彦)가 文藝春秋에 기고한 글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註】

한나라의 방위전략을 생각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사적사실과 지리적 환경이라고 할수있다. 여기에 인용하는 역사의 해석이 반드시 보편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갖가지 異論이 있을수있으나 일본의 국가전략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일본이 처한 객관적인 정세를 알아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역사, 지리환경의 치밀한 분석평가가 先行돼야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近代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전략적환경은 세계사상 보기드문 안정성을 보였다. 중국이 극동지역에서 지배력을 상실하고 태평양과 시베리아를 歐美의 군사력이 장악할 때까지 일본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 한번도 외세에 정복당한 일이 없다. 이런 例外적인 일본의 평화를 가능케한것은 물론 일본의 지리적 特性이지만, 이와 함께 중국의 독자적인 성격과 한국민의 특수한 민족성이 介在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는 데는 일본과 비슷한민족인 韓民族이 역사상 같은시기에 대륙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일본의 경험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대한 단 한번의 본격적 침공이었던 元나라의 정벌은 그 대표적인 비교例가 될수 있다.

高麗와 蒙古는 양국사이에있던 契丹을 멸망시킬때 동맹관계였으나 蒙古는 契丹을 정복하자 고려에게 복종과 朝貢을 명했고 당시 使者의 태도는 고려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은 모욕적인것이었다. 고려는 그래도 참고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쳐 평화를 지키려했지만 평화가 지켜진것은 몽고가 西域과 金을 정벌하고 있었던 동안만이었고 정벌이 끝나자 6년이나지난 사건을 트집잡아 고려를 침공, 대살육을 자행했다. 高麗朝는 그로부터 강화도에들어가 海戰에 익숙치못한 몽고군과 30년간의 전쟁을 벌이지만 그동안 강화도이외의 한반도는 몽고군의 무참한 약탈행위가 계속돼 高麗民은 참담한 고통을 당해야했다. 1252년 몽고 침입당시의 기록을보면 『몽고의 노예가된者 남녀 20만6천8백여명, 살해된者를 이루 헤아릴수없고, 몽고군이 지난 자리는 잿더미로 化했다』고 전하고있다.

한 한국인은 이당시의 史實을 들어 『일본인은 나라의 은혜를입은 기억이있으나 한국인은 없다. 그 당시도 국민은 방치된 상태였다. 따라서 국민의國家觀도 각기 다를수밖에없다. 양국 국민은 역사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며 그에따라 국민성도 다르다. 다르다는 것과 善惡의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일본인은 이것을 혼동하는 좋지않은 습관이있다』고 말하고 있다.

韓민족이 받은 이런 참담한 고통과는 반대로 일본이 다른민족으로부터 한번도 지배를 받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의 냉혹함에대해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낙관적으로 만든 근본 원인이 된다. 더우기 몽고군의 침공당시 일본이 태풍이라는 극히 우연한 자연현상에 의해 거듭 두번이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일본인에게 행운에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행운이 따른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국민성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것 같다. 한국은 70년대 초부터 고도성장을 시작해서 73년에는 GNP가 前年度比 20%증가하는 반면 물가는 3%이하로 잡은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으나 바로 그해 10월 中東전쟁과 오일·쇼크를 맞았다. 당시 한국의 한 경제관료가 『한국은 너무나 운이 없는 민족이다. 고도성장이 시작된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하며 하늘을 보고 탄식하던 모습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급할 때는 『神風』이 불어줄것이라고 믿고있는 민족과는 너무나 도른 차이가 있다. 일본인이 국제환경의 냉혹함을 말로는 알아들으면서도 실감있게 받아들이지못하고 『어떻게 되겠지』하고 생각하는 밑바탕에는 이런 터무니 없는 낙관주의가 깔려있다.

그러나 近代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안정을 가능케한 요인은 이런 단순한 지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한 東아시아의 국제질서에 있었다고 봐야 한것이다.

「팍스·차이나」란 말은 듣기에 생경할지 모르나 이때문에 일본이나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 기간은 파스로마나 파스·브리태니커가 효력을 갖던 기간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장기간의 안정을 이루었다. 파스·차이나는 주변지역에대한 중국의 압도적인 힘과 중국 특유의 宗主·隸屬 외교라는 두개의 기둥에의해 성립됐다. 중국은 그 국토나인구의 크기, 문화수준,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에 있어 주변 각국과는 비교할수 없는 강대국이었으나 주변국에대해 宗主權을 요구하는데 그쳤을 뿐,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한 굳이 정복하려하지 않았다.

外征이 不德한것이라는 사상이 중국에서 확립된 때가 일본에 통일국가가 성립하는 隋·唐시대부터인것도 일본에게는 하나의 행운이지만, 이사상이 중국에서 확립되게 하는데는 韓民族의 저항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다. 十八史略에 나오는 기록을 봐도 저간의 사정을 알수있다.

隋煬帝에대해서는『大業7년, 帝스스로 將이 되어 천하의 군사를 이끌고 高句麗를 쳤다. …쌀을운반하는데 수십만의 인부가 밤낮으로 동원된끝에 死者가 베개를 나란히 하기에 이르렀고, 민중이 곤궁하여 群盜가 횡행했다』고 기술, 뒤에는 十八史略 특유의 템포로 급경사를 굴러내리는 듯이 隋王朝의 몰락을 묘사하고있다.

이당시 고구려의 전투는 참으로 볼만한 것이었다. 乙支文德장군은 隋軍을 평양성까지 유인한 다음 평양성공격에 지쳐 돌아가는 隋軍을 淸川江에서 섬멸적인 타격을 주어, 30만5천의 遠征軍가운데 살아돌아간 者가 겨우 2천7백명이었다는 大勝을거두었다.

韓民族은 여러가지로 불가사의한 민족이다. 놀랄만큼 內向的인 민족이어서 역사상 단한번도 팽창책을 취했던 일이 없다. 朴正熙前 대통령이『우리 5천년 역사상 어느시대에 국경을 넘어 남을 지배한 일이 있는가. … 이런 역사는 불태워 버리자』고 한탄한 말에도 잘 나타나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왔다. 1018년부터 19년에 걸쳐 침입한 契丹軍10만을 섬멸한 姜邯贊장군의 승리가 있다.

또 삼국통일당시 唐軍을 맞아 7년간이나 계속된 羅唐전쟁에서 끝내 唐의 승리를 허용치 않았던 新羅의 勇戰은 감탄할만하다.

어떻게 이럴수 있었는가. 「東夷」각국가운데서는 가장 일찍부터 민족국가의 체제를 갖추었고 문화수준도 높아 외적의 침입에 조직적인 저항이 가능했던것이나 3·1독립선언을 기초한 崔南善의 논문에서도 보이는것처럼 韓民族은 민족의 순수성에 대한 신앙을 하나의 민족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기때문인것 같다.

중국도 이런 민족에 대해서는 匈奴나 몽고처럼 漠北으로 쫓아버리지 못하는 한 朝貢종속관계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었을것이다.

그러나 대륙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韓半島가 대륙과 일본과의 완충지역할을 하지 못할때 일본은 몽고의 침입과 한국전쟁당시와 같은 위기에 직면한다. 이 지리적 조건이야말로 오끼나와(沖繩)반환당시의 닉슨—사또(佐藤)공동성명에『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체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구절을 명시하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일본인은 이런 국제환경의 냉혹함을 이해하면서도 여기에 기초한 전략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태평양전쟁당시와 같은 任務遂行型의 허무한 전투사상에 빠지기 쉬운 외부정보로부터의 무관심속에 안주하고 있다. 【정리=外信部 朴贊式차장】

大陸勢 南下막아 極東안정中樞

乙支文德·姜邯贊장군의 大捷은 戰史上 「감탄할 戰鬪」

팍스·차이나와함께 日平和낳아

神風의 幸運믿는 日人들, 국제적冷酷性 모른채 터무니없는 樂觀主義

日本이 보는 韓半島의 戰略的 의미

우리나라 어린이들 車範根 가장보고싶어요

KITV서 의식조사

◇李相瀧 ◇金敏姬 ◇車範根

崔東原·똑순이·吉昌憙등 인기

제일가고싶은곳 디즈닐랜드·濟州

동물生態·컴퓨터 구조도 관심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축구선수 車範根을 제일 만나고싶어하며 디즈닐랜드에 가고싶어하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다. 또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싶어한다.

이 KBS 제1TV의 어린이대상프로 「달려라 종계」 제작진이 어린이들의 엽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어린이들은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싶어한다. 車範根(6·2%)외에 빠이 李相瀧(5·8%) 똑순이 金敏姬(4·6%) 만화가 吉昌憙(2·8%) 야구선수 崔東原(2·5%)의 순으로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각2명이다. 외국사람으로는 TV시리즈 「기동순찰대」의 판치를 만나고싶어하는 어린이가 많아 어린이들에 미치는 TV의 영향이 크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어린이들이 가보고싶은곳은 디즈닐랜드가 15·8%로 다른곳에비해 압도적이고 다음이 濟州道로 5·6%, 방송국이 3·5%, 美國이 2·8%, 나되며 어린이대공원이 1·9%의 순이다.

또 어린이들의 호기심은 과학적인 현상에 쏠려있는데 동물의생태에대한 관심이 15·1%로 가장많고 로키트와 컴퓨터의 구조에 10·7%가 관심을 나타냈다. 다음이 방송제작에 관한 것으로 6·8%에 이르며 스포츠경기의규칙이 3%이다. 특히 『지구는도는데 사람이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의문을품은 어린이(1·6%)도 있었다.

韓·美무역自由化폭넓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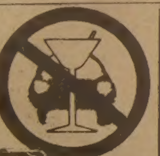
워커美大使, 동반자관계 成熟단계

리처드·L·워커駐韓美대사는 韓美관계는 의존상태를벗어나 동등한지위의 동반자로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양국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등 무역자유화 폭을 너욱 넓혀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워커대사는 19일 능률협회 간담회에참석, 『韓美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란 연설을통해 선진개도국가운데 선도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제3세계 여러나라들에 기여할수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할것이며 앞으로韓美관계는 안보못지않게 경제협력차원에서 관계를 더욱 굳게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늘 새저장법개발 부패적어 年中공급

[illegible] 5도 저장방법으로 부패하기쉬운 마늘을 장기저장할수있는 방법을 개발해 마늘의 연중공급이 가능해졌다. [illegible] 이 방법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한 마늘을 섭씨 영하3·5도에서 8개월간(81·7~82·3)저장한 결과 [illegible] 부패율 3·4%, [illegible] 8·1%, 발아율 60·68%로 常溫저장때의 발아율 34·2%, 부패율 21·3%, 수분함량 73%보다 발아율 46·7%, 수분함량 66·9% [illegible] 보관상태가 한결좋아졌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한국일보 구독 신청을 (416)533·2361

주간女性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Hunts 개업인사
Hunts Bakery
카나다의 유명 제과점인 Hunt's를 소생이 개업하였음을 지면으로인사드립니다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포여러분께는 생일 결혼 Cake에 대해서 10% 할인해 올리겠읍니다 일차 왕림바랍니다
김 준 호 배
Jane & Finch Shopping Mall
☎ : 635-018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李恩求·朴柱奉 결승에

덴마크배드민턴 黃善愛·柳尙希조는 脫落

【코펜하겐18일AP·AP=聯合】한국의 李恩求·朴柱奉조는 18일 코펜하겐에서 속개된 덴마크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복식준결승에서 中共의 혜·상구안·지앙·구올량組를 15-8、15-9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역시中共을 누른 인도네시아선수들과 격돌하게됐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여자복식의 黃善愛·柳尙希조는 이날 준결승에서 中共의 수·룽、우·지앙키組에 9-15、15-7、15-7로 역전패당해 결승진서출문턱에 물러났다。

·한편 中共의 수·룽은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80년 全英오픈대회 챔피언인 덴마크의 러너·코펜요、우·지앙키도 우·디시를 각각 2-0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中共선수끼리 여자단식 패권을겨루게됐다。

◇준결승전적

▲남자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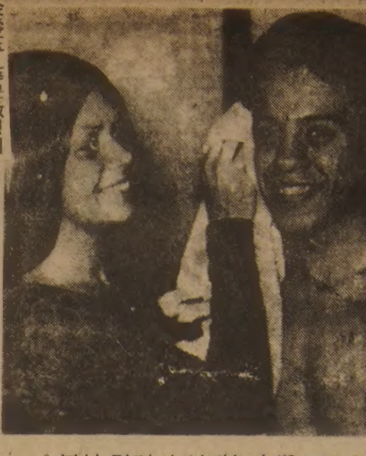
李恩求·朴柱奉 2 (15-9, 15-8) 0 혜·상구안·지앙·구올량

하디나·폼타고 2 (15-11, 15-12) 0 리보리·용티안·빙이

▲여자복식

수·룽·우·지앙키 2 (15-11, 15-7, 9-15) 1 黃善愛·柳尙希

시우린·디잉 2 (15-8, 17-16, 12-15) 1 페리·길크리즈



◇복싱 말리다 아내는自殺…KO勝

前WBA 페더급 챔피언 보비·샤콘부부의 다정했던 한때。최근 샤콘의 아내 발레리 (31) 는 『제발 은퇴하여 안정된 생활을 시작해보자』는 간청을 남편이 차디차게 거절、계속 선수생활을 하겠다고 고집하자 말다툼끝에 지난15일 자살했다。그러나 샤콘 (30) 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끊은 이틀날 링에 올라 살바돌·우갈데에게 3회 KO승、눈물의 勝者가 됐다。48승 (41KO) 1무6패의 샤콘은 세계 주니어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을 꿈꾸고 있다。1남1녀의 아버지인 샤콘에게 팬들은 이렇게 질문한다。『권투가 아내보다 소중한 것인가』고。 <AP>

金壽玉·薛旻敬쟁패 종별테니스 女單式

【光州】82년도 전국테니스종별선수권대회 4일째 경기가19일 光州코트서 속행、여일반 단식서 金壽玉(농협)은 趙美卜(국민은)을 6-4、6-2로 각파、薛旻敬(농협)과 패권을 다투게되었다。

여대단식서는 李庭卿(경상대)·朴良子(단국대)가 우승을 다투게 되었다。

모든게임 1百萬엔에 넘겨

崔承哲씨 가네히라側에 覺書써줘

【東京=宋孝彬특파원】가네히라(金平正紀)흑막의 피해자로 알려져있는 金龍鉉선수의 前매니저 崔承哲씨가 약물공작설로 말썽을 빚고있는 가네히라씨에게 지난해2월 1백만엔을 빌면서 이 돈을 갚을 때까지 자신이 맡은 모든 게임을 가네히라측에 알리고 사전승낙을 얻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18일자 日本의 도오꼬(東京)스포츠 신문이 보도하고 영수증사본을 공개했다。

崔씨가 써준 각서에는『돈을 갚을때까지 崔씨 소속의 선수가 세계타이틀전및 동양타이틀전을 계약할때에는 반드시 가네히라의 대리인 세끼(關光德)에게 미리 통지、승낙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다。

드레프트 廢止요구 中高농구감독 決議

한국중·고농구연맹 감독들은 19일춘계중·고농구연맹전이 끝나는 4월9일까지 드래프트제도를 폐지해줄것을 대한농구협회에 요구하고 만일 이에 불응할경우 오는 5월11일 열리는 종별농구선수권대회 참가를 보이코트하기로 결의했다。

트래프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는 중·고농구연맹 감독들은 그동안 드래프트개정 소위원회가 3차례나 열렸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프로야구

특석5千·內野3千·外野2千원
사용구 국산 스카이라인으로
사인奉仕·어린이 會員모으기

◆…프로야구입장권의요금과 도안이 확정되어 각구단별로 인쇄에 들어갔다。서울은 특석(금색) 5천원、내야(밤색) 3천원、외야(녹색) 2천원、소인(분홍색) 5백원、군·경(회색) 1천원이며、지방은 같은색깔에 3천원부터 5백원까지로 되어있다。

개막전、올스타전、코리안시리즈의 입장권은 6개구단의 마크를 넣어 발매하며、정규시즌동안의 입장권은 각구단별로 프로야구위원회(KBO) 마크와 홈팀의 마크를 넣어 만들게된다。

◆…KBO는 공식 사용구로 국산스카이·라인을 선정했다。또 홈런을때린 선수에 대한 부상으로 한독홈런시계 (싯가약5만원)를 주기로했다。한독시계는 시계관속에서 1초에 야구볼이 하나씩 날아가는 특수디자인의 시계를 개발、우선 2백개를 KBO에 기증했다。KBO는 시계외에도 각기업체서기증하는 기념품들을 홈런타자들에게 시상할 예정。

◆…프로야구 각 구단들의 홍보활동이 활발하다。OB 베어스는 17일부터 어린이 회원 2만명 모으기 작전에 나서 이틀사이에 2천5백여명을 확보、큰 호응을 얻고있다는것。리틀 OB 베어스 회원들에게는 회원증과 함께 모자、아기곰、열쇠고리、책받침、연필、스티카등이 든 리틀·OB베어스 클럽、백구를 선사하며 입장권 할인 구매등 여러가지 특전을 주고있다。

한편 三星은 26일께 신세계백화점、OB는 23일 미도파백화점、三美는 삼일빌딩에서 감독과선수들이 직접나서 팬들에게 사인봉사를 한 계획。

◆…메이저 리그、시범경기에서 만루홈런이 단타로 기록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주말 신시내티-필리델피아·필리즈의 시범경기에서 일어난일。2-2의 동점、9회말 1死만루에서 신시내티의「더블A」출신인 개리·레더스(25)는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결승만루홈런을 때렸으나 1루베이스만을 밟고 덕·아웃으로 돌아와 홈런타구가 단타로 처리됐다。레더스는 그의타구가 필리즈의 좌익수키를 넘긴것으로착각、결승타점을 올린것으로 만족했다는것。그가 다이어몬드를 돌지않았기때문에 신시내티는 6-2로 이길게임을 3-2로 이긴것으로 기록됐다。【AP】

"여보, 저 돈이좀더 필요할것 같아요" "자, 내쪽 사정도 들어보라구" "좋아요, 들어보죠…나도 공평하고 싶어요" "하지만 들어봐도 별 도움은 못될 거예요"

알뜰 해외여행 ④

初心者를 위한 가이드

浪漫이 출렁이는 퀸엘리자베드號

超豪華 여객의 요람

요즘은 「해외여행」이라하면 바로 비행기 여행이다。훨하니 날아가서 바람같이 휘겨다닌다。여정이 짧을때면 공항에서 공항으로 돌아다니다 돌아온듯한 느낌을 받곤 하는 스피드 여행이다。그래서 走馬看山이 아니라 飛機看海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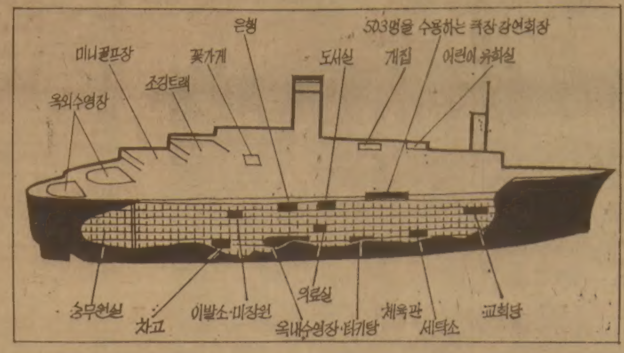
사실「비행기 여행」은 旅情이 없다。드라이하다고 할까、느긋한 마음으로 제대로 풍광(風光)을 즐기고 낭만을 맛볼 수가 없다。역시 여행의 진수는 선박여행이란는것이 정설인 모양이다。

세계적인 호화여객선 퀸·엘리자베드2호가 지난10일 우리나라 부산항에 들렀던 걸 계기삼아 「선박여행」을 소개하기로 한다。먼훗날 돈을 많이번 사람이 많아지면 선박 호화여행을 한번 해볼수있는인사도등장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세계 일류호텔 빰쳐

68년건조된 QE2호는 전장 2백94m、선폭32m、총톤수6만7천1백40톤、객실9백43개로 초대형이며 마스트높이가 62m로 15층짜리 빌딩과 맞먹는다。

「떠있는도시」、「바다의호텔」이라고도 불리는 QE2호는 이처럼 웅장한 모습에 대영제국의 위엄과 바다의 로맨스를 한몸에 싣고 세계의 미항(美港)만을 골라 유람한다。QE2호는 바다의 여왕같은 존재로 세계의 부호들도 이배를타고 80일간의 세계여행을 해보는것이 소원일 정도。시설 또한 완벽하다。선내에 들어서면 세계의 일류호텔(별5개)을 빰친다。



선실1층서 10층까지

로비에 깔린 카피트는 은은한 담록색。이카피트를 따라가면서 선실이 1층에서 10층까지 이어진다。

선상파티가 열리는 6층의 퀸즈룸을 정점으로 4개의 레스토랑、8개의 바、극장 무도장、카지노、4개의 풀、라운지등이 널려져있다。선내의 모든 장식은 영국의 일류디자이너의 작품들이다。특등실과 1등실의 담요는 모두 수제이며 목욕탕과 화장실이 붙어 있고 2등객실도 샤워룸과 화장실이 함께 있다。

80일간의 세계일주여행에는 최하 1만2천5백달러(8백70만원)에서 최고 22만6천달러(1억6천만원)、그러나 80일 전코스를 타는 사람은 승객 1천7백여명중 20%정도이고 나머지는 구간별 탑승객이다。

「바다호텔」호화客室 9백43개
마스트62m로 15층빌딩 높이
80일 세계일주에 최하 8백70만원、최고 1억6천만원

승객은 各樣各色

유람객이 많은 만큼 그 부류도 다양하다。호텔지배인인 스티브코닝씨(42)는 승객을 이렇게 분류했다。머리를 식히려는 사업가、은퇴한 백만장자、백만장자아들딸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등。

지난78년 1년동안 이배의 승무원으로 승선했던 崔光鏞씨(코리아 루어리즘 뉴스誌편집인)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승객의 부류는 훨씬 다양하다。중동의 석유졸부가 있는가하면 돈 많은 독신녀가 있고、이들을 노리는 플레이보이가있는등 각양각색이다。

선적은 영국이지만 QE2가 세계일주를 시작하는 것은 뉴욕。승객중 65%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뉴욕을 출항지로 삼았다。

선상생활은 엄격한 영국상류사회의 관습에 따라야 한다。아침마다 유니온 잭에 대한 경례를 해야되며 파티석상에는 턱시도를 입지 않고는 접근도 말아야하고 또 식당에도 정장을 않고 나타났다간 승무원으로부터 점잖게 망신을 당하고 만다。

◇마도로스의 표상인퀸·엘리자베드2호선장피터·잭슨씨(58)。선원들에겐 대통령부럽지않는 자리이다。

육지생활같이 편안

QE2호는 밤동안 항해하고 아침에 기항지에 입항、승객들이 관광을 즐기게해준다。그러나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항해할때면 며칠씩 망망대해를지난다。그래도 승객들은 아무런지리함없이 육지의 호화생활을그대로 계속할수있다。

QE2는 특수 안정장치로배의 롤링을 3도이하로 줄일 수 있는데다 배냄새가 전혀없어 멀미를 할 염려도 없다。그래도 기분이 나쁘면 병원에 가서 5달러를 내고 주사를 맞으면 그만이다。병원은 의료진30명 베드가 1백개나 된다。

아침이면 갑판위에 마련된 조깅코스에 10여명의 중년남녀가 뛰는 것도 노상 볼수있는 풍경。

미니골프장엔 노년의 사업가로、헬트클럽은 뚱뚱이 아줌마로 만원이다。탁구장엔 핫팬츠 바람의 신혼부부가 탁구를 즐긴다。

식탁엔 산해진미…

아침식탁위엔 산해진미의 요리외에 이배에서 발행하는타블로이드 4면짜리「QE2 타임즈」가 놓여있다。폴란드사태의 진전상황에서부터 내일 기항지의 관광코스까지 두루 읽을 수있다。로비에 마련된 증권전화에서는 뉴욕에 전화를 걸어 증권시세를 알아보고 매매를 지시할수도 있다。

선내에는 사진사도 있어 승객들의 관광코스나 파티를따라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는데이 사진사의 한달 벌이가 자그마치 2만달러。

어린이 40여명을 낮동안 수용할수 있는 어린이교실이 있으며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여름 방학때는 만원이게 마련이다。

수영장까지 갖춰

낮동안 갈수 있는곳은 카드룸 도서관 체육관 강습회 사격장 쇼핑센터등 도시생활과 비교해 손색이없다。특히 갑판위에 설치된 2개의 수영장과 2개의 옥내 수영장은 자신의몸매를 자랑하는 선남선녀로 붐만하다。일광욕을 즐기는 노브라의 미녀를 흔히 볼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사우나 터키탕 마사지룸이 있고 미장원과 이발소엔 저녁파티에 참가할 사람들로 만원사례。일요일이면 교회도 꽉차고 기항전이면 은행창구에 손님이 들끓는다。

밤은 퀸·엘리자베드2호의 것이다。중년은 나이트클럽、젊은이들은 디스코 클럽、파티가 싫은 사람은 5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등이 있어 선택은 여행자의 것이다。선내메뉴는 약5백종이나 되며 꼴꼬룸한 캐비아(철갑상어알)면 더이상의 안주가 없고 고급와인만2만5천병을 싣고다니는등 온갖 美酒가 다 준비돼 있다。생일을 맞은 사람에겐 생일파티를 열어준다。또 카지노가있고 오키스트라가2、그룹사운드가 1、코미디언 가수 댄서가 밤마다 바뀌어 쇼가 벌어진다。극단이 승선할때도 더러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선상에서 벌어지는 바다의 로맨스를 빼놓을 수 없다。

승선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지않더라도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이곳에서도 이루어진다。라운지에 홀로 앉은 여자가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윙크를던지는것은 흔히 볼수 있는일이고 이들 중에는 로맨스를 갖기위해 일부러 승선하는 남자나 여자도 많다는 것。드문 일이긴 하지만 애를 낳는 경우도 있다。이때는 전승객이 모금、전해 주고 큐나드회사에선 이 아기에게 일생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동남아 구간여행 가능

서양인들도 죽기전에 QE2를 타고 세계일주여행을 하는게 소원일 정도라니 알뜰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우리네에겐그림의 떡같은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않다。우리도 동남아를 중심으로한구간여행은 가능하다。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국대리점인 世宗관광 (엔·코리아호텔·전화778-5711)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있다。

【金首宗기자】

◇프로野球 개막전 알리는 6개球團旗 오는 27일의 프로야구 개막전을 앞두고 서울운동장서 6개구단의 대형 현수막이 나붙었다。

구독신청은 533-2361

광고문의
☎
533-2361

취임예배안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요. 그러면 목자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게 될것입니다. (벧전 5:3-4)

본 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신 조남유목사님의 취임예배를 드리고저 하하오니 오셔서 함께 축하와 격려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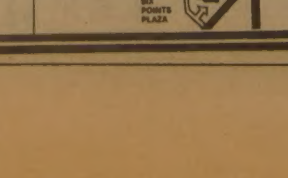
— 아 래 —

때 : 1982년 4 월 4 일 오후 2 시
곳 : 본 교회(3819 Bloor St. West)
St. Andrew's church
설교 : 홍 순 권 목사님(동부장로교회 시무)
안내전화 : 742-2193(정집사)

1982. 3. 15

— 개별 초청 생략

토론토 대한교회 제직일동
KOREAN CHURCH OF TORONTO
3819 Bloor St. W. Islington M8B 1K7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함께 성장합니다!

캐나다 복합문화주의는 많은 프로그램을통해, 서로 당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육성하는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캐네디안들은 서로를더욱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할수 있읍니다.

함께 살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일하는
모든 캐네디안을위한
더 밝은 미래.

복합문화주의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Canada

女子 2명이 휘발유 붓고 男子가 制止뚫고 불질러

女子2명낀 20代7명

陽動「작전」인근엔 不穩전단

【釜山=盧基昌기자】속보=부산中區大廳洞미국문화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9일 이사건을 과격분자조직에 속해있는 20대남녀3명에 의한 방화사건으로 단정하고 이들을 80년12월 전남 光州에서 발생한 光州미공보원 방화사건을 저질렀던 자들과 동일범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사건수사본부장인 韓基炯부산시경국장은 이날하오기자회견을 통해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光州미공보원 방화사건의 주동자였던 丁淳喆씨(27·光州市西區月山洞533)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히고 범인은 단독범이 아닌 여자 2명을 포함해 20대7명으로 구성된 조직적이고 과격한 불순분자들의 소행인것같다고 말했다.

韓수사본부장은 또 불온비라가 살포된 부산中區新昌洞 유나백화점과 中區忠武洞 국도극장이 5백m이내에 있으며 방화시간과 비라살포시간도 비슷한 시간에 잇달아 일어났기때문에 범행최종모의 장소가 미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일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이지역에대한 탐문수사를 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

경찰은 사건발생이후 방화에 사용한 휘발유의 구입처를 캐기위해 시내 전 주유소와 유류판매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펴는 한편 휘발유를 담았던 물통형의 플래스틱용기 출처도 아울러 조사중이다.

또 경찰은 범인으로 보이는 20대 여자 2명이 방화사건직후 미문화원에서 유나백화점쪽으로 급히 도망친것을 보았다는목격자의 문화원 경비원 文興石씨(62) 등 목격자 6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을 토대로 범인들의 몽타지를 작성 배포했다.

경찰은 또 화재가 발생했던 18일하오2시2분께 20대 여자2명이 휘발성물질을 뿌리고 다른남자 1명이 불을지르는것이 목격됐다고 밝혔는데 이날 문화원1층 출입구 안내책상에서 등록부를 기재하고 있다가 중화상을 입은 金義淑양(24·東亞대화과4년)등 2명에 의하면 20대여자 2명이 노란색 플래스틱통에든 인화성물질을 바닥에 쏟았다.

이들은 수위 文興石씨(62)가 쫓아가 제지하자 25세가량의 남자가 달려들어 文씨를 밀어제치는 순간「펑」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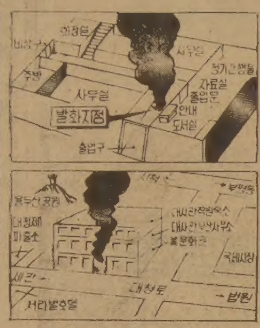
불이나자 근무중이던 한·미직원들과 도서관에있던 열람객 수십명이 긴급대피했으나 열람실에있던 대학생 1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채 숨지고 3명이 부상을입었으며, 6평짜리 3층 건물중 3백50여평을 태워 2천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釜山 美文化院 放火사건

◇방화사건이 발생한직후 경비가 삼엄해진 부산미문화원。

不純분자 所行단정

美수사기관 合同긴급手配



한편 경찰은 불이났던때와 같은 시간에 부산中區忠武洞과 新昌洞 유나백화점앞등2곳에서 2백50여장의 반제,반미내용의 불온유인물이 발견된점등을들어 좌경분자나 불순분자 지하조직이 유인물을 뿌리는사이 극렬행동대원 남녀3명이 방화한것으로보고 미수사기관과도 협조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에의하면 이날 하오2시께 문화원에서 남서쪽으로 50여m 떨어진 유나백화점앞 길에 불온전단이 뿌려졌고 하오2시15분께는 忠武洞3가 90 국도극장3층객석에서 같은내용의 전단이 창구를통해 살포됐으며 역시 같은시각에 忠武洞국제신호대 부근에서도 전단이 살포돼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경찰은 3개지역에 뿌려진 전단 7백81장을 모두 거둬 지문채취를 하는한편 전단을 인쇄한 곳을 찾고있는데 전단내용은▲한일경제협력반대▲북침준비▲88올림픽개최반대▲미국의 신식민지주의 규탄등으로돼있다.

美문화원 수위 文씨와 건물앞 중앙아파트에사는 朴玉子씨(58·여)등 목격자에 의하면 2명의 여자중 1명은 1백57cm가량의 키에 목에까지 늘어진 긴머리를 하고 감색스웨터에 치마차림, 다른1명은 1백60cm가량의 키에 갈색옷차림이었다. 또 남자는 1백70cm가량의 키에 베이지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

警備員 낮밤 8명이교대 3층은 大使館직원 숙소

부산미국문화원 건물은 당초 美문화원이 전부 사용하다 美대사관 釜山사무소가 설치되면서 1층은 문화원이 사용, 도서실 간행물열람실이 있고 2층은 사무소, 1월부터 美대사관 사무소가 들어왔으며 3층은 대사관직원숙소로 사용하고있다.

이건물은 6·25피난시 부산에와있는 지식인들에게 개방돼 많은 각계인사들의 추억이 담긴 곳으로 유명하며 설립당시부터 치외법권지역인 이건물에는 모두 8명의 경비원이 있는데 낮에는 정문에 2명 순찰 1명,밤에는 정문 1명 순찰 1명씩으로 교대근무해왔다.

파이롯트社 專務부인被殺

대낮 面識犯 2人조…茶대접한듯

손발 묶인채 넥타이로 목 졸려

19일 하오4시께 서울城北區貞陵4洞266의162 주식회사 파이롯트전무 李燦鎔(49)씨집 1층에서 李씨의부인 張滿英씨(44)가 넥타이로 목이졸려 피살체로발견됐다.

사건현장은 李씨의장남(14·K중1년)이 학교에서 돌아와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없자 담을넘고 들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머니張씨는 장녀(16·K중3년)가쓰는 이층작은방에서 목이 졸리고 반창고로 눈과입이막혔으며 붕대로 손과발을묶인채 방바닥에 쓰러져 숨져있었다는것.

李씨집2층내실의 장롱과 화장대는 모두열려있었고 물건들이 사방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정확한피해품은 이날하오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張씨가 평상복을입고있었고 집안각방의 방문들이 열려있는점으로 미루어 2인이상의 범인들이 담을넘어 침입, 낮털이를 하려다 張씨에게 들키자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간것으로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이 현장에 왔을때 집안응접실 탁자위에 3잔의 코피가 있었는데 1잔은 다마셨고 2잔은 스푼이 꽂혀있었으며 전축에서는 경음악이흘러나와 경찰은 면식범에의한 사건으로 추정하고있다.

88올림픽 汎民族추진위 어제 서울大會 열려

委長에 金高大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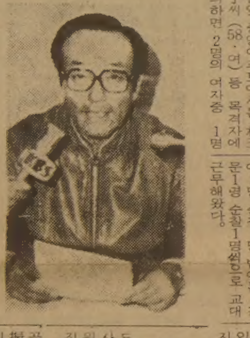
88올림픽 범민족서울시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19일상오 서울世宗文化회관 대강당에서 각계의 추진위원 4천5백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金相浹高大총장, 부위원장에 鄭壽昌 대한상의회장과 文胎甲 한국신문협회장이 선출됐고 이사61명 감사3명도 선임했다.

時計 대량密輸 재일교포 拘束

【金海】金海세관은 19일 재일교포 李千璉씨(55·여·일본복구주거주)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金海세관 감시종사 鄭씨(27) 강오영씨(25)등 2명을 관련조사한뒤 입건했다.

李씨는 18일하오 2시40분께 KAL731편으로 金海공항에 입국하면서 양주4개속에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 2백47개(싯가 1천4백만원)를 숨겨들여와 빼돌리려다 적발됐다.【金】



◇韓본부장

關心의 첫公判

鄭載巴군 차분히 父母·叔母에 미소도

朴尙恩양 피살사건

상명여대생朴尙恩양(21)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鄭載巴피고인(21·I大3년)에 대한 첫공판이 19일 상오10시 서울지법 東部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梁基俊부장판사)심리로 열려 12분만에 끝났다.

이날 공판은 3분간에 걸친 재판부의 인정심문에 이어 趙炳吉 검사의 공소장낭독 7분이 전부였는데 사회의 관심을 끄는 큰 사건의 첫공판이 이같이 짧게 끝난데 대해 재판부가 심리를 신중하게하려는 조처라고 본측과 여론을 분산시키려는검찰의 공판기술이 돋보인다는 평을 하는 견해가 나오는 이색공판이었다.

다음공판은 오는4월2일.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통해 鄭피고인은▲범행당일 朴양을 만나게 된것은 朴양이 먼저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었으나 포옹하려하자 뺨을때리며 욕설을 퍼붓는 반응에 모욕을 느꼈고▲朴양이 張모군(22)과 교제하고 있는데 대해 느껴온시기심 ▲자신의 키·외모등이 張군보다 못한데 대한 열등감▲전날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은 우울한 감정등이 일시에 폭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鄭군이 차안에서 朴양을 주먹으로 3번때린뒤 밖으로 나가려하자 안전벨트로 목을 감고 다시 두손으로 목을 졸라 머리를 유리창틀에 밀어붙여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개정5분전에 미결수번호「55」가 찍힌 푸른색 미결수복과 검정색 고무신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鄭피고인은 다소 초췌해보였으나 차분한 모습이었는데 방청석의 아버지(52·H개발 상무)와 어머니(44) 숙모(38)등가족들을 뒤돌아보며 손을흔들고 미소를 짓기도했고, 이때 어머니와 숙모는 눈물을감추지못했다.

鄭피고인은 인정심문에서 이름·생년월일·주소등을막힘없이 진술했으며 이어 공소장이 낭독되자 다소 긴장된듯 2~3차례 심호흡을 한뒤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공판이 끝난뒤 鄭군아버지는 그동안 5~6차례 아들을 면회했는데 오히려 격정을 말라고 위로하더라며 『아들을 암만 범인으로 몰더라도 죄가없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고 卞甲圭변호사도『모든 준비는 충분히 되어있다』며 자신에 차있었다.

◇공판정에나온 朴尙恩양살해 혐의의 鄭載巴군。초췌한 얼굴이었으나 차분한 표정이었다。뒤에 부모와 숙모㊂등 가족들이 초조한 기색을감추지 못한채 재판과정을 지켜보고있다。

在美교포 밥통속에 拳銃·실탄

空港서 붙잡혀

18일 하오2시30분께 金浦국제공항에서 재미교포 元瀞漢씨(31·상업·미 조지아주 아틀랜타시)가 KAL 007편으로 입국하면서 캐리버 25구경 소형권총 1정과 실탄 1백여발을 밥통속에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다.

金浦세관은 元씨와 총기를 관계 수사기관에 넘겼는데반입목적등은 19일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李元洪회장 留任

한국放送協 총회

한국방송협회는 19일 8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82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고 임원을 개선했다.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留)▲부회장=李振燮(문화방송사장·留)▲이사=金觀錫(기독교방송사장·留)河鍾塔(釜山문화방송사장·新)韓俊愚(大邱문화방송사장·留)馬三烈(光州문화방송사장·新)▲상임이사=韓承銀(사무국장·留)▲감사=林鎭澤(한국방송공사감사·新)權五龍(大田문화방송사장·新)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후 2: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욱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룡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 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주일학교 3:00 예배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성령교회	김관선	새벽예배(토,일):아침6시 금요성경공부:저녁9시 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6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장점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주 보 •명 함 •청첩장 •책 자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의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전화: 766－5639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효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카펫·카텐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 박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태 권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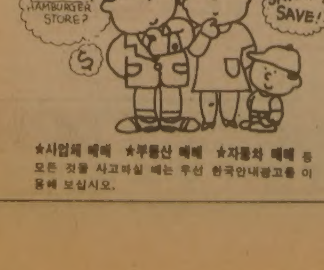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한국일보 안내광고＊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여행」을 팝시다
여가를 이용해서 돈을 법시다. 파트타임 희망자로 단체. 업체. 노인그룹. 클럽등과 접촉이 있는분은좋은기회 입니다.
돈사가 훈련하고 뒷받침 해줌. 영어 필요. 코미션만 지불.
☎ : 675－1960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구함.
출퇴근도 가능
☎ : 7 4 2－0434

경험있는 홀 타임 헬퍼(남자분) 구함
1666 Queen St. W. ☎ : 532－6143, 532－9638

피터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중고차를사서 피해를 입은분은 급히 연락바람.
☎ : 928－0556(Mr. Kim)

경험있는 캐셔 구함. 서부지역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 : 767－0762

경험있는 가게캐셔구함(남녀관계없음)
(베이뷰×핀치)
☎ : 223－3865, 493－5895

도너스 가게에서 밤일(Full Time)하실분
남자분 구함(밤12시~아침8시)
☎ : 531－2689

일요일에 가게 캐셔해주실분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킹스톤×미드랜드)
전화:266－6355

입주해서 할머니 보살필 한국여성 구함
전화:231－7991 Mrs. Kim

정원사 구함. 신체건장한 남자로써 영어나 일본어를 필요로 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298－3316 Mrs.가라사와

지렁이 사업은 하실분에게,
74년도 대형 벤트럭 있음. (깨끗하고 콘디션 좋음)
의자와 박스도 구비되어 있음. 전화: 655－6543 (Mr. Lee)

구 혼

배우자 구함. 본인은 현재 캐나다 방문중인 현 39세의 건강한 독신남자임.
연락처:537－0238 Mr.Kim

매매및 양도

① 최신식 방갈로, 사정에의해 급히 팔고자함.
3베드룸(핀치×베더스트)
좋은 모개지, 아스킹 : $ 129,000
② 도너츠와 햄버거
도너츠 주매상 : $ 4,500 햄버거 주매상 : $ 2,500
비데오 머신에서만 월수입 : $ 10,000
요구액 : $ 289,000
③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 4,500(일종의 Tuck Shop)요구액 : $ 32,000
④ 점포와 3베드룸 아파트, 요구액 : $ 82,000
이 훈모 부동산 ☎ : 225－1204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 시 ☎ : 783－0134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 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 80,000
☎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가정 사정으로 급매"
적은 자본으로 베커 운영하실분
혼자운영 가능 2층에 2베드룸 포함.
주매상 : $ 3,500이상
렌트 : $ 472(월)이층살림집 포함
☎ : 535－3550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ft. 2개 $ 2,500)
★밀크오픈쿨러(10 ft. $ 2,000)
★오픈 후로즌(10ft. $ 2,000) ★저울($ 800)
1503 Bayview Ave. ☎ : 485－9419(Mr. 최)

카테지(8채)공원을접한 해변가까이 있음
2베드룸(2채). 1베드룸(4채). 배추러(2채)
아스킹 : $ 99,800, 다운페이먼트 : $ 35,000

아파트 밀집지역 건너편 광장안에 위치한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가게와 기프트가게($ 26,000)
드라이크리닝($ 13,500)
Doris Burda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과일점이나 기프트 샾을 하기에 좋은
더프린 근처 1784 Eglinton Ave. W. 에
위치한 건물팝니다.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조그만 버라이어티 스토아급매(로타리오 머신 있음) 주매상 : $ 2300, 렌트 : $ 350(월)
714 Scarlett Rd.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가정의 벗 한국일보

직접 만드는 델리카티슨(빵집) 매매
새장비 구입, 워크－인 쿨러, 바쁜지역임.(오릴리아)
아스킹:$59,000＋스탁
전화:862－0788 교환 53 Mr. Don Whitfield,
A.E.Lepage(Ont.) Ltd.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 1900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W.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하우스 렌트

독신자에 한함. 월 $ 190
가구 갖춰 있음(St. Clair W. 근방)
☎ : 763－3289

방세놓음(월 : $ 170, $ 140) 독신자환영
Pape Subway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 렌트 원하시는 분
— 600 sq. ft (2층)
— 500 sq. ft (3층)
☎ : 921－2304 Mr. 최
830 Yonge st. (영 × 불루아)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크로스웨이 꽃집 (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전화: (B) 535－1355 (R) 757－0905 님파 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흘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복덕방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A.E.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스 포 츠

브랜튼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 PM, 토요일 10AM－6 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목공소 FineWoodwork 상점시설및 주택개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팰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기 타

인생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Lady "M"을 찾아 오세요.
1344 ST. CLAIR. W. 전화: 652－1495

＊한국일보 안내광고＊

'82~'83 재미교포사업의 길잡이!!

재미한인 기업년감

재미 한인 기업 년감 편찬 발행 취지

한국일보 뉴욕지사에서는,한국 및 북미에서 날로 발전하여 가는 한인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한 경제 정보를 교환 제공하고, 기업체 사이에서의 상호 협조 및 유대 강화를 돕기 위하여서 《**82—83 재미 한인 기업 년감**》을 편찬 발행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사업은,한국일보 뉴욕지사가 주관하고, 북미 안에 있는 한국일보 전 지사들이 협조하여서, 가장 정확한 재미 한인기업 년감을 편찬할 것입니다.

이 년감을 통하여서, 현재 북미 안에서 운영 발전하고 있는 한인 기업체들의 현황, 기업 경영의 개선책 및 국제적 경제력을 쌓아 올림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80년대의 한국 경제 발전과 한인 기업의 발전 면모를 직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재미 한인 기업가들이 앞으로 이룩하여 가야 할 경제성장의 길을 모색함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체의 재미 지사들은 물론이고, 북미 안에서 이룩한 주식회사와 그 지사들, 그리고 개인 기업체로 운영되는 모든 기업체들이 이 편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뜻하시는 바의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 상: 북미 한인 기업체와 북미 주재 한국상사, 지사 및 개인기업체 (카나다 포함)
신청마감: 1982년 4 월31일
접수방법: 한 기업체가 신청서와 신청비 $ 100를 동봉하시면 됨
특 전: 년감이 발행되면, 년감 1권을 우송하여드림 (송료 본사 부담)
제 출 처: THE KOREA NEWS, INC.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42-22 27 TH ST, L.I.C, N.Y. 11101
(212) 784 - 4500

목차

1.수록 기업의 기준
전미주 기업체 주재상사, 지사, 합자회사 일체를 대상으로함.

2.업종분류
전미주에 미정부, 주, 시로 부터 등록된 기업종류에 대체를 따랐음.

3.수록 순서
업종별로 가나다 순서에 따랐고 한기업체가 여러 업종을 가지고 있을때는, 대표 업종을 기준으로 삼음.

4.자료 수집 방법
직접조사(방문, 전화문의)와 간접조사(우편, 협회, 단체, 관련업체)에 의존 함.
단: 상기 방법으로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역 한국일보 신문 혹은 자매지에 보유된 자료로 사용함.

5.부록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료

'82-'83년 재미 한국 기업 년감 신청서

대표자명 (영어)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본 적 특별시 (도) 시 (군)

사업명
설립 년월일 년 월 일
경영 형태 개인경영 ( ) 주식회사 ( )
자본금 $
본사
종사원수 전화 ( )
주요취급은행
사업내용 (상세히)

※CHECK나 MONEY ORDER로 TO :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주관: 한국일보 뉴욕지사

42—22 27th ST. L.I.C.,N.Y.11101 TEL.: (212)392—5671(임) (212)784—4840(임)